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1. 9 | No.144

차 례

I. 해외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2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경제

1. 국내 경기	15
2. 고용	17
3. 물가	18
4. 금융·외환	19
5. 수출입	21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2
(1) 총괄	22
(2) 자동차	25
(3) 조선	27
(4) 일반기계	28
(5) 철강	30
(6) 정유	31
(7) 석유화학	32

(8) 섬유	34
(9) 가전	35
(10) 무선통신기기	36
(11) 반도체	37
(12) 디스플레이	39
2. 서비스산업	40
(1) 생산	40
(2) 고용	43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8
(1) 생산	48
(2) 고용	49
(3) 수출	51
2. 지역별 동향	52
(1) 수도권	52
(2) 충청권	54
(3) 호남권	56
(4) 대경권	58
(5) 동남권	59
(6) 강원·제주권	61

V. 산업 포커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산업의 수출 동향과 정책 과제	63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1. 9 | No.144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1년 9월 30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215
인쇄처 이호문화사

I

해외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7월 중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 간 혼조세 속에 체감지표들의 혼조세도 이어지면서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불투명
 - 올 들어 고용 회복과 인플레 심화 등이 가시화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델타 변이 확산 등이 변수
- 일본은 6월 중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하면서 실물지표들이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유로존은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부문 간 혼조세가 지속
 - 일본은 올 2분기 중 소비와 투자가 전분기와 달리 동반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소폭이나마 플러스 성장률(0.5%)을 기록하고, 유로존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2% 성장
- 중국은 7월 생산과 소비 등 주요 내수 지표들과 수출증가율이 전월보다 상당폭 떨어지면서 하반기 실물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
 - 하반기 들어 대내외 경제지표 실적이 부진한 데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한 영향 등으로 인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미국	실질GDP ¹⁾	2.3	-3.4	4.5	6.3	6.6				
	산업생산	-0.8	-7.2	2.0	1.0	1.5	0.0	0.8	0.2	0.9
	소매판매	3.3	0.3	0.4	8.0	6.5	0.9	-1.4	0.7	-1.1
	무역수지 ²⁾	-576.3	-676.7	-196.8	-206.1	-208.4	-66.7	-68.5	-73.2	-70.0
일본	실질GDP	0.0	-4.7	2.8	-1.1	0.5				
	광공업생산	-2.7	-10.6	5.7	2.8	1.2	2.9	-6.5	6.5	-
	소매판매	0.1	-3.5	0.1	0.4	-2.1	-4.6	-0.3	3.1	-
	무역수지 ²⁾	-1,668	563	1,959	542	439	249	-193	384	-
유로	실질GDP	1.4	-6.5	-0.4	-0.3	2.2				
	산업생산	-1.4	-8.4	4.4	1.1	-0.1	0.7	-1.1	-0.3	-
	소매판매	2.4	-1.0	-1.2	-1.3	3.4	-3.8	4.1	1.5	-
	무역수지 ²⁾	223.0	234.9	75.8	69.3	39.5	13.3	13.8	12.4	-
중국 ³⁾	실질GDP	6.0	2.3	6.5	18.3	7.9				
	산업생산	5.7	2.8	7.1	24.6	9.0	9.8	8.8	8.3	6.4
	소매판매	8.0	-3.9	4.6	34.0	14.1	17.7	12.4	12.1	8.5
	수출(달러화)	0.5	3.6	16.9	45.6	30.8	32.3	28.0	32.2	19.3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전환 및 유가 제한적 상승

- 달러화는 지난 8월 중 연준 이사들의 테이퍼링 필요성 발언과 파월 총재의 금리 인상 관련 시기상조 발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 이후, 9월 들어서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강세 전환 움직임
 - 달러화 지수는 8월 중 2020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93.6, 8.19일)까지 상승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0일
엔/달러 환율	103.25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09.94
달러/유로 환율	1.2216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814
미 국채 (10년 만기)	0.91	1.07	1.40	1.74	1.63	1.59	1.47	1.22	1.31	1.34
WTI유	48.5	52.2	61.5	59.2	63.6	66.3	73.5	74.0	68.5	69.7
두바이유	50.2	54.3	63.1	62.4	64.5	66.6	73.0	73.3	69.4	70.4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유가는 8월 중순 이후 미국 원유재고 감소 지속과 달러화 약세 전환,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등으로 배럴당 70달러까지 반등하고, 9월 들어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결정과 중국 전략비축유 방출 등으로 제한적 상승
 - WTI유는 8월 중 배럴당 62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5월 이후 최저치 기록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7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6.4%로 성장세 주춤

- 7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4%로 상반기 이후 최근까지의 성장세에서 이탈하여 성장세가 주춤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0.6%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2%
- 7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국유기업과 주식제기업은 높고 민영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5월	6월	7월
공업 전체		5.7	-1.3	2.8	15.9	8.8	8.3	6.4
섬유	방직	-5.9	-25.9	-15.7	11.8	6.9	8.1	7.2
	화학섬유	12.5	-1.0	3.4	17.1	8.4	6.1	9.3
화학	에틸렌	9.4	-0.8	4.9	26.6	23.7	31.1	23.5
	플라스틱원료	9.3	2.8	7.0	12.3	5.8	8.0	5.3
	플라스틱제품	3.9	-9.6	-6.4	18.2	7.1	6.1	-0.1
철강	선철	5.3	2.2	4.3	4.0	-0.2	-2.7	-8.9
	조강	8.3	1.4	5.2	11.8	6.6	1.5	-8.4
	강재	9.8	2.7	7.7	13.9	7.9	3.0	-6.6
비철금속		3.5	2.9	5.5	11.0	10.3	8.0	7.1
기계	금속절삭기계	-18.8	-7.7	5.9	45.6	31.8	29.5	27.5
	소형 트랙터	3.0	-29.7	-47.2	27.6	14.3	13.3	-29.4
	대기오염방지설비	-13.7	-22.5	-21.1	25.6	-6.5	-23.6	-6.9
	발전설비	-15.0	16.7	30.3	17.4	10.9	-18.8	-8.8
자동차		-8.0	-16.5	-1.4	26.4	-4.0	-13.1	-15.8
조선		9.3	-10.4	-8.2	19.1	14.6	15.6	-22.8
전자	세탁기	9.8	-7.2	3.9	33.5	12.1	13.0	4.2
	냉장고	8.1	-6.9	8.4	18.8	-4.2	-15.4	-18.3
	에어컨	6.5	-16.4	-8.3	21.0	14.0	-12.1	2.8
	컬러TV	-2.9	-2.5	4.7	5.6	-3.2	-13.4	-24.6
	컴퓨터	6.9	5.2	16.0	40.6	7.3	28.6	8.5
	반도체	7.2	16.4	16.2	48.1	37.6	43.9	41.3
	휴대폰	-6.0	-13.3	-9.5	21.1	16.9	2.9	-2.1
서비스	화물운수	5.5	-7.8	-0.5	24.6	12.6	10.3	7.8
	여객운수	-1.9	-54.8	-45.1	11.1	15.1	-6.1	-6.6
	우편 ³⁾	31.5	22.4	29.7	34.4	20.0	22.9	22.7
	통신 ³⁾	62.9	28.3	28.1	28.3	28.5	30.2	25.5
	소매업	7.9	-8.7	-2.3	20.6	10.9	11.2	7.8
	음식숙박업	9.4	-32.8	-16.6	48.6	26.6	20.2	14.3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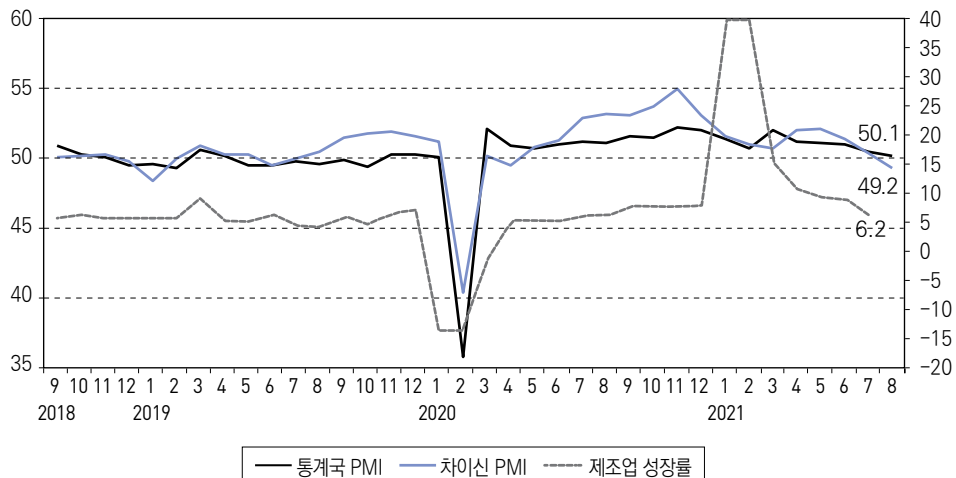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7.2%
 - 민영기업은 6.1%
 - 주식제기업은 7.1%를 기록
- 7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증가세를 보이는 업종도 있으나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전자업종 일부, 여객운수 등 감소한 업종도 다수 등장
- 섬유업종은 전년동기비 방직 7.2% 및 화학섬유 9.3%의 높은 증가
 - 화학업종은 에틸렌이 23.5%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플라스틱원료는 5.3%의 소폭 증가를 보였고 플라스틱제품은 0.1% 감소
 - 철강업종은 선철(-8.9%), 조강(-8.4%), 강재(-6.6%) 등 모든 품목에서 감소
 - 비철금속은 7.1% 증가
 - 기계업종은 금속절삭기계(27.5%)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형 트랙터(-29.4%), 대기 오염방지설비(-6.9%), 발전설비(-8.8%) 등은 감소
 - 자동차는 반도체부품 등의 부족으로 15.8% 감소 지속
 - 조선업도 22.8%의 큰 폭 감소
 - 전자업종은 반도체(41.3%)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컴퓨터(8.5%), 세탁기(4.2%), 에어컨(2.8%) 등도 증가하였으나, 냉장고(-18.3%), 컬러TV(-24.6%) 등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휴대폰(-2.1%)은 감소로 전환
- 7월 서비스업은 여객운수를 제외하고 비교적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
- 화물운수(7.8%)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여객운수(-6.6%)는 감소세 지속
 - 우편과 통신은 각각 22.7% 및 25.5%의 높은 증가 지속
 - 소매업은 7.8%, 음식숙박업은 14.3% 증가
-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50.1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둔화
- 8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50.1로, 5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기회복이 둔화
- 생산지수는 0.1포인트 하락한 50.9로, 생산량은 증가세 유지

- 신규주문지수는 1.3포인트 하락한 49.6으로, 시장수요 부족
 - 부품재고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47.7로, 재고 부족이 지속
 - 종업원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49.6으로, 고용은 여전히 임계치 이하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0.9포인트 하락한 48.0으로, 원자재 공급 지연 현상이 지속
- 제조업 PMI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임계치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중형기업은 성장세를 크게 회복하였으나, 소형기업은 여전히 임계치 이하로 경기둔화 지속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1.4포인트 하락한 50.3으로, 간신히 임계치 이상
 - 중형기업은 1.2포인트 상승한 51.2로, 임계치를 넘어서며 회복
 - 소형기업은 0.4포인트 상승한 48.2로, 여전히 기준치 이하
 - 8월 차이신(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1.1포인트나 하락한 49.2로, 2020년 4월 회복 이후 가장 낮은 값으로 임계치 이하를 첫 기록
 -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전반적인 제조업 성과가 부진하기 때문으로 해석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방역 강화로 공급업체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시장수요의 감소로 기업의 구매 활동과 고용이 위축
- 전반적으로 생산 제한, 수요 위축, 원재료 및 부품의 조달난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신규 수출주문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시현
- 생산량 감소에 따라 구매 활동이 줄면서 부품 재고는 감소하였으나, 최종재의 재고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배송 지연과 판매 부진이 이유
- 원재료 가격과 운송료의 상승으로 투입재 가격도 상승하였으며, 비용 인플레이션이 3개월 연속 계속되어 공장 출고가격도 소폭 상승
- 중국 제조업체의 향후 1년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나, 코로나19로부터 언제 회복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불확실성은 증가

(2) 미국

□ 7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9% 증가

- 7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7.9% 증가하였으나 4월 이후 생산증가율은 지속 하락(4월 24.3% → 5월 18.9% → 6월 10.4%)
 - 생산증가율 하락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관찰되었는데, 특히 항공우주(26.4% → 18.2%), 정유(21.1% → 14.0%), 컴퓨터·주변기기(20.9% → 14.8%), 1차 금속(29.1% → 23.7%)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
 - 다만, 제지와 통신기기의 생산증가율은 6월 각각 4.3% 및 12.5%에서 7월 5.5% 및 13.8%로 상승
- 자동차·부품 생산은 전년동월비 6.1% 감소하며 제조업 중 유일하게 감소하는 등 부진이 두드러짐.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	-6.4	-2.4	-0.1	17.5	24.3	18.9	10.4	7.9
식품	-2.6	-1.5	-0.5	7.7	12.4	8.2	3.0	3.4
제지	-4.3	-3.6	-5.8	3.8	0.4	7.1	4.3	5.5
정유	-13.0	-11.6	-7.5	24.1	26.4	25.0	21.1	14.0
화학	-2.6	0.0	-3.4	10.1	8.8	11.0	10.5	9.1
플라스틱·고무	-7.6	-2.0	-0.8	19.1	27.2	20.9	10.7	8.9
1차 금속	-13.4	-6.3	-3.5	33.3	34.8	36.1	29.1	23.7
금속제품	-7.6	-5.8	-3.5	9.4	12.9	9.0	6.6	6.3
기계	-6.1	-0.4	3.3	23.2	30.6	23.3	16.7	13.7
컴퓨터·주변기기	14.1	19.7	14.1	20.6	19.7	21.3	20.9	14.8
통신기기	12.4	13.0	9.8	11.0	9.7	10.9	12.5	13.8
반도체·전자부품	3.7	5.8	10.6	14.6	15.1	16.1	12.9	10.7
자동차·부품	-15.7	2.4	4.8	86.9	305.9	136.8	8.7	-6.1
항공우주	-20.1	-17.2	8.5	35.6	58.5	26.5	26.4	18.2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7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1.7% 증가

- 7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1.7%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부분의 제조 업종에서 전월비 생산 지표 부진이 관찰되며 전월 실적(23.1% 증가) 대비 크게 감소
- 특히 수송기계, 금속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에서 생산증가율이 크게 하락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	-10.3	-3.5	-1.1	19.9	15.8	21.1	23.1	11.7
강철·비철금속	-14.6	-4.3	-0.4	34.4	22.5	38.4	44.2	29.8
금속제품	-11.5	-6.0	-0.6	15.9	9.4	19.0	20.3	7.9
생산기계	-10.3	-1.3	11.3	25.6	23.3	24.6	28.6	31.1
일반용·업무용기계	-12.1	-3.5	-1.2	22.9	18.3	26.2	24.7	18.0
전자 부품·기기	1.4	5.2	9.7	23.8	15.9	26.9	29.1	24.0
전기·정보통신기기	-9.7	-0.6	5.1	21.8	19.6	23.2	22.6	12.3
수송기계	-17.4	-1.5	-7.1	54.5	52.8	63.4	50.1	11.3
요업·토석제품	-8.5	-4.7	-3.9	13.4	7.6	14.8	18.3	11.3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12.5	-10.7	-5.4	9.3	3.5	11.3	14.1	7.5
석탄·석유제품	-15.5	-12.6	-11.4	0.9	-2.5	3.6	2.1	3.0
플라스틱제품	-6.3	-1.0	-0.7	14.8	10.6	19.0	15.6	6.9
펄프·종이·가공품	-9.7	-5.8	-5.0	9.2	2.2	12.2	14.5	10.0
식품·담배	-3.0	-3.6	-2.9	0.7	1.1	-1.3	2.3	-
기타 제조업	-13.2	-8.7	-5.3	14.9	6.3	17.2	22.6	12.8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수송기계는 6월 전년동월비 50.1%에서 7월 11.3%로 가장 크게 하락
- 금속제품과 플라스틱제품도 같은 기간에 각각 20.3% 및 15.6%에서 7.9%, 6.9%로 큰 폭 하락
- 이 밖에 7월 제조업 생산을 견인한 철강·비철금속, 전자부품·기기도 같은 기간에 각각 44.2% 및 29.1%에서 29.8% 및 24.0%로 하락
- 전월비 생산증가율이 상승한 업종은 생산기계(28.6% → 31.1%)와 석탄·석유제품(2.1% → 3.0%)이 유일

(4) 유로존¹⁾

□ 7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8.5% 증가

- 7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및 조선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확대되며 전년동월비 8.5% 증가
 - 1차 금속은 1차 철강제조업, 금속 주조, 제철 및 제강업이 각각 25.7%, 17.1% 및 16.9%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17.5% 증가
 - 전자부품은 기판 생산의 경우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부품(18.3%)이 크게 확대되며 15.9% 증가
 - 반면, 자동차의 경우 차체 및 트레일러와 부품이 확대되었으나, 완성차(-23.2%)의 부진으로 인해 12.1% 감소
 - 조선은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이 감소(-3.4%)하며 0.3% 감소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1/4	2/4	4월	5월	6월	7월
제조업 전체	-9.1	3.6	23.8	42.9	22.4	10.7	8.5
식음료	-2.4	-1.6	8.3	7.5	10.4	6.6	5.0
섬유	-12.8	2.3	33.8	73.9	23.7	18.0	11.7
정유	-10.1	-8.4	6.8	7.5	8.8	4.2	3.1
화학	-2.5	2.5	13.1	14.0	14.6	10.5	7.2
고무·플라스틱	-8.6	5.5	30.5	52.3	30.1	14.3	7.3
1차 금속	-13.1	3.9	35.6	50.2	33.8	26.4	17.5
조립금속	-12.0	6.2	32.7	61.6	29.0	16.6	12.0
기계	-12.7	4.1	24.3	48.8	21.2	11.3	14.8
통신기기	-14.2	9.7	27.5	54.6	36.2	5.9	3.6
전자부품	1.8	6.7	22.3	31.4	23.4	14.2	15.9
자동차	-23.8	-0.9	61.7	434.0	50.5	-3.4	-12.1
조선	-8.1	6.4	23.6	83.6	10.4	1.0	-0.3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II

국내 실물경제

01 국내 경기

□ 7월 전 산업 생산, 0.5% 감소, 소비 감소, 투자 반등

- 7월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0.4%)과 서비스업(0.2%)이 증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1.9%)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0.5% 감소
 - 광공업은 자동차(-3.9%) 등에서 감소한 영향에도 반도체(1.6%)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4% 증가하고, 서비스업도 도소매(1.7%), 정보통신(2.7%)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0.2% 증가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전월비 1.6%)가 증가한 반면에, 승용차 등의 내구재(-2.8%)와 의복 등 준내구재(-2.7%)가 동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월비 0.6%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4.0%)와 운송장비(1.1%)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3.3% 증가하고,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2.6%)이 반등한 반면 토목(-13.4%)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비 1.9%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하락함에도 수입액,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전월비 0.2% 상승(6개월 연속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수출입물가비율, 재고순환지표 등이 하락했으나, 코스피,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됨에 따라 0.2% 상승(17개월 연속 상승)

국내 실물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2.2	-0.9*	-1.1* (1.1*)	1.9* (1.7*)	6.0* (0.8*)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6.6* (-1.3*)	1.2* (1.2*)	3.7* (3.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6.1* (-0.6*)	12.4* (6.1*)	12.8* (1.1*)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2.9* (3.5*)	-1.8* (1.3*)	-1.2* (-2.3*)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1.5 (1.6)	2.7 (1.7)	7.2* (0.4*)	8.5 (-1.3)	6.9* (-0.2*)	6.5* (1.6*)	4.7* (-0.5*)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0 (2.9)	4.4 (3.4)	12.7* (-1.2*)	12.2 (-1.9)	14.5 (-1.3)	11.5* (2.3*)	7.9* (0.4*)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1 (3.1)	4.4 (3.4)	13.2* (-1.2*)	12.8 (-1.9)	14.8 (-1.7)	11.8* (2.5*)	7.6* (0.0*)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0 (0.9)	2.2 (0.7)	5.8* (1.7*)	8.3 (0.2)	4.2 (-0.4)	5.0* (1.6*)	4.2* (0.2*)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2 (0.9)	6.4 (1.7)	4.4* (2.7*)	8.7 (2.1)	3.1 (-1.8)	1.6* (1.4*)	7.9* (-0.6*)
설비투자지수	-5.7	6.0	2.8 (0.8)	11.9 (6.9)	12.4* (0.5*)	16.4 (3.1)	11.2 (-2.6)	9.9* (-0.5*)	11.7* (3.3*)
건설기성액	-2.3	-4.1	-5.3 (2.5)	-7.2 (-3.6)	-5.3* (-2.4*)	-3.6 (-2.6)	-6.8 (-2.9)	-5.6* (-0.7*)	-8.1* (-1.9*)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12.0 100.3	112.3 98.8	113.6 99.4	114.4 99.7	116.6* 101.2*	116.3 101.1	116.6* 101.2*	116.8* 101.2*	117.0* 101.3*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14.6 99.1	119.5 99.6	122.5 100.7	124.7 101.6	127.1* 102.5*	126.3 102.2	127.2* 102.5*	127.9* 102.8*	128.1* 102.6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7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0% 증가

- 7월 전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이 다시 증가세를 보인 영향에도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하락세(2.2% → 2.0%)
 - 제조업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회복(-0.2% → 0.1%)
 - 반면에 농림·어업의 증가폭이 다소 축소(1.0% → 0.7%)되고, SOC·기타서비스도 3개월 연속 증가폭이 둔화(2.7% → 2.5%)
 - 건설업의 증가폭도 현저히 축소(7.0% → 4.6%)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은 전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2.7% → -3.5%)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전 산업	27,123	26,904	26,952	26,369	27,467	26,923	27,214	27,550	27,637	27,648
전년동기비	1.1	-0.8	-1.6	-1.4	2.3	1.2	2.5	2.3	2.2	2.0
농림·어업	4.1	3.6	2.4	-0.2	0.2	-1.8	-0.2	-0.2	1.0	0.7
제조업	-1.8	-1.2	-2.4	-0.6	0.1	-0.3	0.2	0.4	-0.2	0.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1.7	2.9	1.7	3.1	2.9	2.7	2.5
건설업	-0.7	-0.2	2.2	1.7	7.0	4.7	7.3	6.6	7.0	4.6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7.0	-6.9	-2.4	-3.5	-2.2	-2.3	-2.7	-3.5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3	1.8	5.2	3.9	5.5	4.4	5.8	6.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5	0.9	0.2	-0.4	4.3	3.3	4.5	4.6	3.9	4.2
실업률(계절조정, %)	3.8	4.0	4.3	4.4	3.7	3.9	3.7	3.8	3.7	3.3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7.6% → 4.9%)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9% → 8.3%)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8.7% → 9.9%), 교육서비스(1.2% → 1.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6.1% → 6.5%)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 역시 확대(3.9% → 4.2%)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3%로 전월보다 하락

03 물가

□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6% 상승, 전년동월비 2.6% 상승

- 8월 소비자물가는 보건(전월비 -0.1%)이 하락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2.4%), 교통(0.8%), 오락·문화(1.1%), 음식·숙박(0.4%)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상승(전년동월비 2.6% 상승)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비자물가	0.4	0.5	0.4 (0.1)	1.1 (1.2)	2.5 (0.5)	1.5 (0.1)	2.3 (0.2)	2.6 (0.1)	2.4 (-0.1)	2.6 (0.2)	2.6 (0.6)
근원물가	0.9	0.7	0.7 (0.0)	0.9 (0.6)	1.4 (0.6)	1.0 (0.1)	1.4 (0.3)	1.5 (0.3)	1.5 (0.1)	1.7 (0.1)	1.8 (0.3)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7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모두 확대, 9월 초(9.1~9.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7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증가 전환되고,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2021.6월 +5조 1,000억 원 → 7월 +11조 3,000억 원, 대기업 +2조 3,000억 원, 중소기업 +9조 1,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의 요인으로 전월과 달리 크게 늘어나며 증가 전환된 모습이고,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된 모습
 - CP는 전월에 비하여 발행규모가 늘어나며 순발행 기조가 지속되었고, 회사채는 건조한 투자수요 등으로 순발행 기조는 이어지고 있으나, 만기도래 물량 증가 등으로 발행규모는 전월에 비하여 축소된 모습,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월비 증가규모가 소폭 축소된 모습

기업 자금조달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19		2020		2021				21.7월 말 잔액
	1~7월	7월	1~7월	7월	1~7월	5월	6월	7월	
은행 원화대출 (대기업)	29.2	1.5	86.1	8.4	57.1	5.7	5.1	11.3	1,033.5
(중소기업)	-0.3	-1.1	26.1	1.9	3.6	-0.8	-1.1	2.3	175.4
〈개인사업자〉	29.6	2.6	60.0	6.4	53.5	6.5	6.1	9.1	858.1
	13.4	2.0	31.3	2.6	23.7	2.3	3.2	4.2	409.7
회사채순발행	12.8	3.4	12.2	1.5	15.1	-0.2	2.8	1.5	-
CP 순발행	4.8	1.2	7.9	0.5	8.9	-0.7	0.1	0.9	37.5
주식발행	3.6	0.6	4.5	2.1	16.5	3.2	2.4	1.8	-
은행 가계대출	27.1	5.8	48.2	7.6	51.4	-1.6	6.3	9.7	1,040.2
주택담보대출	22.2	3.7	36.2	4.0	36.5	4.0	5.1	6.1	758.4
기타 대출	5.1	2.2	12.1	3.7	14.9	-5.5	1.3	3.6	280.8

자료: 한국은행.

- 7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전월보다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된 모습(2021.6월 +6조 3,000억 원 → 7월 +9조 7,000억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집단대출 취급도 지속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된 모습이며, 기타대출은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확대된 모습
- 국고채(3년) 금리는 주요국 금리 상승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인한 영향과 한은이 8월 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여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상승한 모습(9.1일 1.42% → 9.10일 1.50%, 0.08%포인트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미국 10년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인하여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연장,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으로 상승한 모습(9.1일 1,157.2원 → 9.10일 1,169.1원, 11.9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0				2021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10일
국고채(3년)	1.07	0.84	0.85	0.98	1.13	1.45	1.42	1.40	1.50
회사채(3년, AA-)	2.08	2.25	2.19	2.21	2.06	1.97	1.85	1.83	1.94
CD(91일)	1.10	0.79	0.63	0.66	0.75	0.68	0.70	0.92	0.96
CP(91일)	2.20	1.51	1.11	1.09	1.00	0.97	0.97	1.12	1.12
원/달러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0.3	1,159.5	1,169.1
원/100엔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48.5	1,057.0	1,065.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05 수출입

□ 8월 수출 34.9% 증가, 수입 44.0% 증가, 무역수지 흑자 17억 달러

-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4.9% 증가한 532억 달러, 수입은 44.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성장품목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고 주요 지역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1차산품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국내 경기 회복으로 중간재와 소비재를 비롯해 자본재 수입도 44.0%의 두 자릿수 증가
 -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5.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70.6% 상승하고, 도입물량도 1.8%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 기준 73.7% 증가한 60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19 (4.1)	1,464 (12.5)	1,568 (42.1)	512 (41.2)	507 (45.6)	548 (39.8)	554 (29.6)	532 (34.9)
수입	5,033 (-6.0)	4,676 (-7.1)	1,237 (-1.7)	1,363 (12.1)	1,490 (37.5)	508 (33.9)	478 (38.0)	504 (40.7)	537 (38.1)	516 (44.0)
무역수지	389	452	182	102	78	4	29	45	18	17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8월 실적은 잠정치.

Ⅲ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7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6% 증가, 전월비 보합

- 제조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11.6%), 금속가공(-4.4%), 자동차(-3.4%)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반도체(34.4%), 1차 금속(16.9%), 화학제품(12.4%)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비 7.6%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2.2%)와 중공업(9.5%)은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경공업(-0.5%)은 감소세로 전환된 모습
 - 전월비 기준으로는 담배(-11.6%), 통신·방송장비(-6.2%), 자동차(-3.9%) 등의 업종이 줄어들었지만, 비금속광물(5.9%), 기타운송장비(5.1%), 반도체(1.6%)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
- 제조업 생산능력은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 1.0% 증가, 전월비 0.3% 감소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3.9%로 전월보다 1.4%포인트 상승하였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의 증가폭(8.4% → 6.4%,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은 축소되었고, 재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19)	2019	2020	2021					
				1/4	2/4*	5월	6월*	7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6.7	106.3	109.8	113.7	110.8	116.3	115.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4.4	12.7	14.5	11.5	7.9	0.4
제조업(원지수)	9,484.5	106.6	106.3	109.1	114.4	111.4	117.2	116.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4.4	13.2	14.8	11.8	7.6	0.0
섬유	135.0	-5.9	-10.5	-4.5	25.1	29.4	20.9	12.1	2.6
화학	883.8	-1.3	-3.0	2.8	15.6	18.6	16.2	12.4	0.3
철강	454.3	-2.2	-6.3	-1.9	13.3	14.2	20.9	19.4	2.4
반도체	1,285.6	11.7	22.7	21.9	27.2	26.8	25.8	34.4	1.6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3.2	8.7	17.2	8.8	2.7	-5.3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8.7	41.7	53.3	21.3	15.4	-6.2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17.0	31.9	38.7	25.6	20.4	-1.1
기계, 장비	819.2	-5.9	3.6	9.4	18.4	20.4	17.4	9.5	1.0
자동차	981.6	-0.5	-10.0	11.2	22.5	28.2	20.4	-3.4	-3.9
조선	206.3	17.6	8.6	-15.6	-17.6	-16.1	-22.3	-24.4	-2.6
중공업	-	0.6	0.6	5.5	14.4	16.2	13.4	9.5	0.1
경공업	-	-0.6	-4.0	-0.3	7.4	8.5	4.8	-0.5	-0.2
제조업(CT)	-	4.8	11.9	14.0	19.9	21.6	16.4	22.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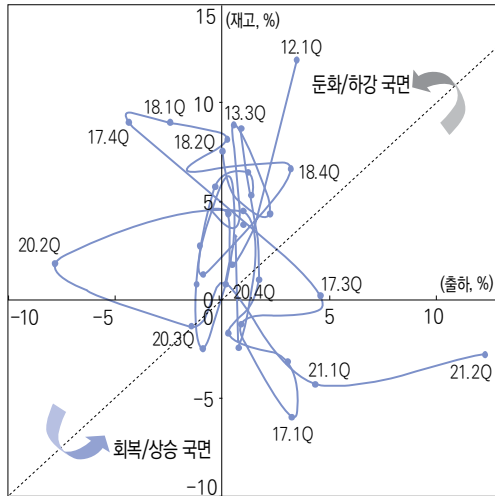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고의 감소폭(-5.0% → -3.0%)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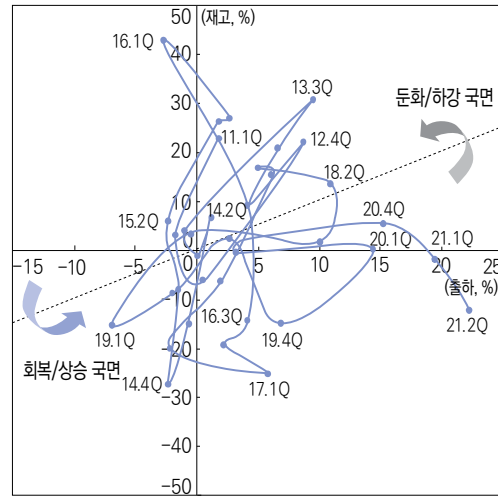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1%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모습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2021년 2분기)



자료: 통계청.
주: 21.2Q는 2021.4월~7월 평균.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2012년 1분기~2021년 2분기)



자료: 통계청.
주: 21.2Q는 2021.4월~7월 평균.

□ 13대 주력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품목별로는 13개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동반 증가하고, 반도체와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확대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반도체는 신규 CPU 출시 및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으로 메모리 주문이 확대되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수요 증가와 파운드리 호조로, 일반기계는 공작기계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기계 수출도 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
 - 자동차는 친환경차·SUV의 수출단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주요 시장에서 백신 접종률 확대로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철강은 철강재 수출단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
- 한편, 선박은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발주량이 증가하고 후판 가격 인상으로 선가도 회복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선종이 다수 통관되면서 수출 증가세 대폭 확대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자동차	5.3	-13.1	1.1	31.5	74.8	73.4	93.7	62.4	12.3	16.9
자동차부품	-2.5	-17.3	3.8	5.6	123.2	99.9	182.3	108.0	34.9	22.4
선박류	-5.3	-2.0	32.1	28.4	12.0	14.4	-14.9	41.4	9.2	38.4
일반기계	-1.9	-8.8	-5.1	-1.4	21.2	17.0	25.7	21.3	18.3	23.4
철강	-8.6	-14.4	-6.5	7.5	50.7	38.9	62.9	51.6	41.5	53.7
석유화학	-14.8	-16.4	-7.7	26.5	81.0	82.4	93.8	68.7	59.6	81.5
석유제품	-12.2	-40.6	-44.7	-16.6	112.0	99.9	169.0	82.9	73.0	54.9
섬유	-8.0	-13.3	-6.5	-8.4	46.1	46.5	57.1	36.5	17.5	19.2
가전	-3.6	0.5	18.9	15.7	66.4	69.3	89.3	47.5	29.7	12.4
무선통신기기	-17.6	-6.4	11.8	21.6	38.5	79.8	41.3	3.3	4.9	62.1
컴퓨터	-20.6	57.2	8.5	2.8	8.9	1.6	7.5	16.5	26.4	26.1
반도체	-25.9	5.6	18.7	14.0	29.7	30.2	24.5	34.4	39.6	43.0
디스플레이	-17.0	-12.3	17.8	16.3	36.1	43.5	38.6	28.2	38.0	23.7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8월 실적은 잠정치.

(2) 자동차

□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내수는 감소

● 8월 내수는 국내 생산차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4.2% 감소

- 국산차 내수는 일부 생산공장의 가동 중단에 의한 공급 감소로 5.3% 감소

- 수입차 등록 대수는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에 따라 1.0% 증가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5	-10.0	-2.9	11.2	22.5	28.2	20.4	-3.4	-
	생산(전기비)	-	-	-1.0	4.8	-6.7	-9.2	6.5	-3.9	-
	출하	0.4	-9.6	-2.2	11.5	23.3	28.7	15.1	-1.2	-
	재고	2.1	9.2	9.2	2.5	3.2	-3.5	3.2	2.1	-
	가동률	3.6	-9.1	-3.5	9.1	17.4	14.1	12.5	-7.7	-
	내수판매동향	-1.6	5.7	0.2	11.2	-12.9	-12.3	-20.8	-9.8	-4.2
교역 동향	수출	2.4	-14.5	2.0	21.7	88.4	117.0	74.9	18.8	18.8
	수입	-1.1	7.3	21.1	22.5	37.2	49.1	50.2	58.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8%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지속
 - 완성차는 전기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16.9%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자동차 부품은 해외생산 가동률 상승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로 인해 미국, EU로의 수출 확대 22.4% 증가
- 7월 수입은 완성차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비 58.4% 증가
 - 완성차가 93.7% 증가세를 보이며 자동차 수입 증가를 견인
- 7월 생산은 코로나 확진과 생산준비 공사 등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 코로나 확진과 생산설비 설치공사로 일부 생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며 전년동월비, 전월비 모두 감소

(3) 조선

□ 생산지표 침체 지속, 수출입은 큰 폭 증가

- 코로나 변종의 출현으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해운운임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7월 말 기준 세계 선박 발주량은 전년동월비 126.0% 증가한 2,970만 CGT를 기록
 -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체선 문제로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전 선행 모드 크게 증가한 것을 비롯, 모든 선종 대부분의 선행에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의 7월 누적 수주량은 1,280만 CGT를 기록
 - 수주량 증가율이 155.0%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7월 말 기준 수주잔량이 약 2,830만 CGT로 2015년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여 중국에 이어 2위를, 건조량도 670만 CGT를 기록하여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 후판 등 강재가 강세로 신조선가 지수는 7월 말 기준 144로 13.0% 상승하였고, 해운의 BDI 지수는 9월 6일 기준 3,822로 상승 이후 하락 추세, 수요 및 공급망 영향으로 컨테이너선 HR 지수는 4,284로 계속 고공 행진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7.6	8.6	-1.3	-15.6	-17.3	-16.1	-22.3	-24.4	-
	생산(전기비)	-	-	-2.2	-14.3	-3.6	-0.2	-4.1	-2.6	-
	출하	20.0	7.2	-2.5	-17.2	-17.8	-16.4	-22.7	-23.8	-
	가동률	42.3	21.1	11.2	-9.2	-10.7	-10.9	-22.5	-26.5	-
교역 동향	수출	-5.2	-2.0	32.1	28.3	11.9	-14.9	41.3	9.3	38.5
	수입	-9.7	44.4	40.7	-3.6	-5.6	4.6	30.3	63.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 8월 수출은 전년동월 수출실적이 월평균 규모를 하회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국내 조선소들의 주력선종인 LNG/LPG운반선, 제품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등의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증가 지속
 - 전년동기의 수출실적이 월평균 규모보다 약 28.6%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다수의 대형 LNG운반선, 제품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적기에 인도되면서 8월 수출은 38.5% 증가
- 7월 수입은 코스타리카 등에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선박)이 큰 규모로 반입되었고, 압축점화식 엔진 외에 선박부품의 수입은 줄었으나 미국, 일본 등에서 모터보트의 수입도 발생하면서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중국에서의 선박 반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다수의 편의치적국으로부터 BBC선박 반입이 이루어져 여타 수입 포함 92.0% 증가율을 보였고, 선박용 부품 수입이 약 30.9% 감소한 가운데 7월 전체 수입은 63.9% 증가

(4) 일반기계

□ 생산 9개월 연속 증가, 수출은 두 자릿수 호조세 지속

- 7월 생산은 내수와 수출 확대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9.5% 증가하여 2020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
 - 내수와 설비투자 역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수주는 전월에 이어 42.8%의 대 폭 증가
 - * 기계류 내수출하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5월) 10.6 → (6월) 7.5 → (7월) 6.0
 - * 기계류 설비투자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5월) 14.8 → (6월) 11.2 → (7월) 9.7
 - * 국내 기계수주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5월) 57.8 → (6월) 40.2 → (7월) 42.8
 - 재고율(재고/출하)은 수요 대응을 위한 재고물량 확보로 상승세 지속
 - * 재고율(%): (2021.5월) 101.4 → (6월) 104.9 → (7월) 106.8
 - 가동률 역시 전반적인 업황 호조로 상승세 유지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9	3.6	3.7	9.4	18.4	20.4	17.4	9.5	-
	생산(전기비)	-	-	5.1	2.2	2.1	-4.4	1.5	1.0	-
	출하	-5.1	1.6	1.9	8.0	19.3	21.8	17.3	10.4	-
	재고	2.6	8.4	8.4	14.1	18.2	14.2	18.2	19.0	-
	가동률	1.0	-6.6	-4.0	-4.7	11.9	13.9	10.5	5.0	-
교역 동향	수출	-1.9	-8.9	-5.1	-1.4	21.2	25.7	21.3	18.4	23.5
	수입	-3.6	-0.2	4.7	12.7	14.0	16.6	14.0	3.3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 8월 수출은 주요 수출국 수요산업 경기회복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23.5% 증가한 40억 6,600만 달러 기록
 - 주요국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재건을 위한 도로·교통 인프라 투자 및 제조장비 설비투자가 재개되면서 건설기계, 공작기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세 유지
 -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역시 노후 생산설비 교체 및 신규 설비투자 증가로 대폭 증가
 - * 8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중국(8.8, 24.0%), 미국(6.3, 27.8%), 유럽(3.4, 12.9%), 중남미(1.5, 27.5%), 중동(1.2, 21.7%), 인도(1.1, 104.1%)
- 7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3.3% 증가한 27억 300만 달러로 증가세 지속
 - 수요산업 내수경기 호조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동월 큰 폭의 수입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둔화
 - 주요 품목별로는 제지인쇄기계(117.6%),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78.5%), 운반하역기계(54.9%) 건설광산기계(43.1%), 공작기계(39.3%)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섬유 및 화학기계(-51.5%), 식품가공포장기계(-23.2%) 등은 전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 지속

(5) 철강

□ 생산과 수입, 내수 확대로 큰 폭 증가

- 7월 생산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산업 호조와 전년도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10.6%의 큰 폭 증가
 - 7월에는 주요 제조업의 여름철 휴가가 집중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로 인해 대다수 품목의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
 - * 7월 생산증가율(전년동월비): 철강재 10.6%, 봉형강 17.3%, 열연강판 8.0%, STS 냉연강판 22.2%, 강관 6.2%
- 8월 수출은 주요국 전방산업 경기 개선효과, 중국의 수출억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전년 동월비 53.7% 증가
 - 철광석 가격은 하락세인 반면 수출단가는 여전히 전년비 높은 수준 유지
 - EU, 중남미, 인도 등 주요 수출국에서 자국 내 산업생산 재개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 시장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한국의 반사이익으로 수출 확대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	-6.3	-1.5	-1.9	13.3	14.2	20.9	19.4	-
	생산(전기비)	-	-	8.1	0.0	1.8	-3.0	2.4	2.4	-
	출하	-2.0	-6.1	-0.1	2.2	17.9	20.8	14.8	13.9	-
	재고	-0.3	-16.8	-16.8	-19.3	-27.0	-29.4	-26.1	-20.3	-
	가동률	-2.1	-6.0	-1.0	-1.5	13.4	12.6	17.3	17.3	-
교역 동향	수출	-8.6	-14.5	-7.0	7.7	50.7	62.9	51.6	41.5	53.7
	수입	-0.9	-24.7	-24.1	3.3	40.5	31.7	70.8	124.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EU 80.1%, 일본, 62.5%, 중남미 80.1%, 인도 130.7%

- 7월 수입은 국내 생산 증가를 초과하는 내수 증가와 수입재 재고 확보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월비 124%의 큰 폭 증가
 - 판재류(90.4%), 봉형강류(109.5%), 강관류(37.9%) 등 대다수 품목에서 국내 전방산업 경기회복에 따른 큰 폭의 수입 증가가 나타남.
 - 한편, 중국의 수출관세 부과 가능성과 러시아의 수출관세 부과 결정, 한국의 STS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따라 국내 수입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수입 증가가 나타남.

(6) 정유

□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7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 동반 확대로 전년동월비 2.2% 증가
 - 내수는 항공유를 제외한 전반적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로 8.8%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기준): 휘발유(1.9%), 경유(2.5%), 나프타(9.6%), 병커C유(27.2%), 항공유(-9.0%), 윤활유(76.8%), LPG(10.3%), 아스팔트(27.0%)
 - 수출물량은 휘발유, 항공유 및 윤활유 등 수송용 석유제품의 전반적 확대 지속으로 2.1%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기준): 휘발유(62.3%), 경유(-10.3%), 나프타(-9.2%), 병커C유(-29.5%), 항공유(14.7%), LPG(15.8%), 아스팔트(-16.9%), 윤활유(56.4%)
- 8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비 54.9% 증가
 - 석유제품 수출액은 6개월 연속 증가하였지만, 국제유가 상승 둔화 및 정제마진 하락으로 증가폭 축소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증가율): (2020.8월) 44.0 → (2021.8월) 69.5(58.0%)
 -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0.8월) 48.9 → (2021.8월) 76.5(56.4%)
 - * 석유제품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0.8월) 19.9 → (2021.8월) 30.8(54.9%)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6.3	-6.3	-8.6	6.3	9.1	3.9	2.2	-
	생산(전기비)	-	-	-0.6	-1.4	6.8	3.3	-4.3	0.1	-
	출하	-1.4	-7.3	-10.5	-11.9	1.4	2.1	2.0	-1.0	-
	재고	-10.5	-8.6	-8.6	-17.7	-9.9	-7.9	-9.9	-12.0	-
	가동률	-2.3	-6.2	-6.3	-8.7	6.3	8.9	4.1	2.3	-
	내수판매동향	-0.3	-5.8	-9.9	0.3	5.0	-2.4	8.0	8.8	-
교역 동향	수출	-12.2	-40.6	-44.7	-16.6	112.0	169.1	82.9	73.0	54.9
	수입	-18.2	-26.1	-45.6	-19.1	151.6	182.3	132.6	137.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증가 추세는 지속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

* 지역별 수출증가율(%): 중국(-42.7), 미국(174.6), 일본(56.0), 아세안(48.4), EU(-14.3), 중동(228.1)

(7) 석유화학

□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증가와 국내 공급능력 확대로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유지

● 7월 생산과 출하량은 전년동월비 각각 12.4% 및 5.6% 증가

- 7월 국제유가는 중순까지 미국발 소비 부진, 사우디-UAE 간 생산량 조정 합의 등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하순 들어 증산 지체에 따른 공급부족 전망으로 소폭 상승

- 에틸렌 가격은 다운스트림 제품 시황 악화와 해상 물류 차질로 수요와 공급 모두 감소하며 통상적 손익분기점에 수렴하는 모습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3	-3.0	-1.2	2.8	15.6	18.6	16.2	12.4	-
	생산(전기비)	-	-	2.7	3.6	1.9	-1.3	1.3	0.3	-
	출하	1.1	-2.9	-4.2	2.8	10.6	11.9	8.3	5.6	-
	재고	-0.4	-6.2	-6.2	-11.2	2.9	-2.5	2.9	10.2	-
	가동률	-4.4	-1.8	-0.6	0.4	9.3	10.5	7.2	5.4	-
교역 동향	수출	-14.8	-16.4	-17.6	17.0	45.4	47.2	50.7	52.0	81.5
	수입	-12.8	-15.1	-18.2	15.5	35.9	37.2	42.3	42.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다운스트림 제품 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5.4% 상승한 반면 재고는 10.2% 증가
- 소비재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PS와 완구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ABS 생산 및 수출 증가세
- 8월 수출액은 글로벌 화학제품 수요 증가와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로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81.5% 증가
 - 8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69.5달러로 전년동월비 58%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톤당 수출단가도 60% 상승
 -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회복 정책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며 건설용 합성수지 수요 증가
 - 운송수요 회복에 따른 타이어 및 자동차 내장재 수요, 의료용 라텍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며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수출의 호조세 지속
 - ※ 주요 수출국(전년동월비 증가율): 중국(66.1%), 아세안(65.4%), EU(101.4%)

(8) 섬유

□ 국내외 수요 증가로 생산, 수출 증가세 지속

- 7월 생산은 내수와 수출 동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6.6% 증가
 - 수출의존도가 높은 화학섬유의 경우 높은 수출 증가에 힘입어 54.1% 급증
 - 수출 증대로 염색·가공업이 43.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직물은 14.6% 증가
 - 의류의 경우 17.0% 증가하였는데 그 가운데 봉제의류와 편직의류가 각각 15.5%, 6.1% 증가하였고, 액세서리가 50.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기타 섬유제품은 전년동월 생산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16.6%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
- 국내 의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비 12.2%의 큰 폭 증가
 - * 의류 소매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5월) 5.2% → (6월) 4.7% → (7월) 12.2%
- 수출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6개월 연속 증가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6	-14.8	-12.2	-5.7	21.5	26.6	19.9	16.6	-
	생산(전기비)	-	-	-10.5	-4.6	19.4	27.1	17.5	16.7	-
	출하	-4.9	-11.9	-7.6	-1.1	15.1	16.9	12.6	6.5	-
	재고	-0.4	-4.7	-4.7	-12.6	-4.7	-8.5	-4.7	0.5	-
	가동률	-2.5	-12.4	-8.2	-4.0	34.6	41.1	33.4	19.2	-
교역 동향	수출	-8.0	-13.3	-6.6	-8.3	46.0	57.1	34.6	17.6	19.3
	수입	-0.2	-5.3	-2.8	9.0	16.5	25.0	1.3	-1.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2) 섬유산업은 섬유, 의복, 화학섬유 기준임.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 (2020.8월) 7.9(-17.5) → (2021.8월) 9.4(19.3)

* 8.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 아세안 1.9(6.9), 미국 1.2(27.6), 중국 1.1(36.0)

(9) 가전

□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지속

- 7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6.7% 감소, 전월비로는 2.2% 증가
 - 생산은 생활가전 분야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분야의 감소세 심화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
 - 생활가전 분야의 재고 누적,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 판매량 부진이 생산 감소의 주요 요인
 - 재고는 생활가전 생산 증가 둔화와 영상음향기기의 국내생산 규모 감소로 올해 처음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 가동률은 재고 누적과 전년 호실적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비 9.2% 하락
- 8월 수출은 글로벌 수요 증가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12.3% 증가
 - 글로벌 경기 호조와 미국 중심의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수출 증가를 견인 중이며, 증가는 전년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로 둔화
 - * 8월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2019) -7.1% → (2020) 14.5% → (2021) 12.3%
 - 반면,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수출은 베트남, 인도 등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공장 생산 감소에 따른 부품 수출 위축으로 부진
 - * 7월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중국 -4.2%, 베트남 4.2%, 인도 -4.5%
- 7월 수입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로 전년동월비 7.8% 감소
 - 반면, 대인도네시아(TV) 수입은 해외생산 증가로 대폭 증가세를 유지(전년동월비 315% 증가)
 - 7월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 둔화로 8,800만 달러 흑자로 전환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3	3.1	4.2	8.5	5.7	3.1	-3.3	-6.7	-
	생산(전기비)	-	-	-3.6	4.3	-3.9	-10.1	-0.4	2.2	-
	출하	-4.3	1.4	5.7	3.8	2.1	4.5	-2.1	0.9	-
	재고	-12.5	11.1	19.7	16.1	22.4	27.5	2.8	-8.9	-
	가동률	-1.1	2.4	1.6	3.7	1.9	0.2	-7.3	-9.2	-
교역 동향	수출	-3.6	0.5	18.9	15.8	66.5	89.3	47.5	29.7	12.3
	수입	-0.1	6.3	24.8	39.3	24.0	23.0	13.6	7.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10) 무선통신기기

□ 신제품 출시 효과로 수출이 큰 폭 증가

- 7월 생산은 내수가 부진했지만 계속되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5.4% 증가
 - 출하도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25.3% 증가하고 가동률도 25.3% 상승
 - 국내 휴대폰 시장은 8월 국내업체의 신규 폴더블폰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가 반영되면서 다소 부진
 - * 7월 국내 휴대폰 시장은 가입자 회선 수 기준으로 신규가입이 8% 증가했지만 기기변경과 번 호이동이 각각 5.9%, 7.1%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2% 감소
- 8월 수출은 약 13억 5,000만 달러 규모로 전년동월비 62.2% 큰 폭 증가하며 금년에 들어 증가 추세가 지속
 - 전년동월 수출 부진(-32%)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지만, 국내업체 신규 플래그십폰 (폴더블폰)의 출시 효과로 휴대폰과 휴대폰부품 수출이 모두 크게 증가

무선통신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11.3	2.2	28.7	41.7	53.3	21.3	15.4	-
	생산(전기비)	-	-	19.3	7.5	0.1	-7.6	-9.0	-6.2	-
	출하	-7.7	-14.4	0.3	43.4	36.0	46.6	14.2	25.3	-
	재고	0.7	15.2	15.2	4.1	-7.3	-1.3	-7.3	-21.3	-
	가동률	-3.6	-8.5	-5.2	29.1	24.1	23.2	6.6	21.4	-
교역 동향	수출	-17.6	-6.4	11.9	21.6	38.5	41.2	3.4	5.0	62.2
	수입	9.6	-4.9	-2.3	20.1	0.6	-5.6	-6.5	-6.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8월 휴대폰 수출(3억 9,100만 달러)은 전년동월비 99.3% 증가, 휴대폰부품 수출(7억 8,600만 달러)은 55.4% 증가

- 지역별로 대아세안 수출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5% 감소했지만, 대중국 수출이 375.9% 큰 폭 증가하고 대미국 수출은 79.1% 증가

● 7월 수입은 휴대폰과 휴대폰부품이 각각 13.9%, 2.9%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비 6.4% 감소

- 품목별로 보면 무선중계기가 9% 증가하고 안테나와 트랜시버 등이 증가한 반면, 무선교환기, 무선수신기 등 기타 주요 품목들의 수입이 감소

(11) 반도체

□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8월 수출액 역대 1위

● 8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3.0% 증가한 117억 2,700만 달러로 초호황기였던 2018년 8월의 115억 1,400만 달러보다 2억 1,300만 달러 늘어나, 역대 8월 실적 중 가장 큰 규모

-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4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
-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출증가율이 각각 30.2%, 24.5%, 34.4%, 39.6%, 43.0%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
- 7월 반도체 생산과 출하는 반도체 수요 증가로 각각 전년동월비 34.4% 및 45.3% 증가하여 반도체 매출이 호조세
 - 반도체 응용제품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출하도 증가
 - 7월 재고는 전년동월비 22.5%의 큰 폭 감소세를 보이지만, 수급은 원활한 상황
-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해외 시장 조사기관이 발표하면서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염려가 커졌으나,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호조세 유지
 - 코로나 상황이 장기국면에 접어들면서 초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때문에 발생한 폭발적인 수요가 다소 감소함에 따라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외 언론이 보도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1.7	23.9	12.6	21.9	27.2	26.8	25.5	34.4	-
	생산(전기비)	-	-	3.5	16.9	-0.5	5.2	8.6	1.6	-
	출하	12.0	28.9	29.9	36.7	40.7	41.7	40.8	45.3	-
	재고	-9.6	9.0	8.7	4.3	-25.7	-15.4	-25.6	-22.5	-
	가동률	-3.0	3.7	-0.8	4.5	7.0	8.3	6.4	13.1	-
교역 동향	수출	-25.9	5.6	18.7	14.0	29.7	24.5	34.4	39.6	43.0
	수입	5.2	6.9	23.1	13.0	25.1	20.6	26.5	18.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 해외 시장조사 기관은 메모리반도체 현물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
- 이에 반도체산업 경기가 내림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플랫폼 산업의 시장 확대 등으로 실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

(12) 디스플레이

□ OLED 중심 수출 구조 강화 지속

- 6월 생산은 OLED 생산 확대에도 LCD 감산으로 인하여 소폭 축소
 - LCD 감산에도 폴더블폰 신제품 발매 등 OLED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비 1.0% 감소하였으며, 전월비로는 1.2% 감소하여 감소폭 축소
 - 4분기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주요 제품군에서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생산규모 확대 전망
- 8월 수출은 OLED 수요 확대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23.7%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증가
 - LCD 수출은 생산 축소로 12.4% 감소하여 3개월 연속 감소
 - OLED 수출은 스마트폰 OLED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47.3% 증가하여 작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
 - * OLED 출하량(백만 대): 모바일 (2020.6월) 26.8 → (2021.6월 추정) 44.0
TV (2020.6월) 0.4 → (2021.6월 추정) 0.7
 - 지속적인 OLED 수요 확대로 OLED 수출 비중은 70%를 상회
 - * 총수출에서의 OLED 비중(%): (2019) 50.0 → (2020) 60.6 → (2021.8월) 71.9
 - 주요 수출 지역인 아세안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
 - * 주요 지역 수출증가율(%): 아세안 29.1, 중국 17.4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3	-6.3	5.3	-4.6	1.8	7.6	-3.5	-1.0	-
	생산(전기비)	-	-	7.7	-7.1	-4.0	-3.1	2.1	-1.2	-
	출하	-11.8	-8.8	2.4	-8.6	-4.2	2.4	-8.4	-5.7	-
	재고	-35.0	-9.2	-9.2	-20.7	-16.9	-7.4	-16.9	-9.8	-
	가동률	-6.1	-1.6	8.3	-4.7	3.2	7.9	-4.0	-1.2	-
교역 동향	수출	-17.0	-12.3	17.8	17.8	17.8	38.6	28.2	38.0	23.7
	수입	-9.6	-29.6	-32.7	-32.7	-32.7	-26.3	-32.8	-27.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6월 및 7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8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7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4.2% 증가

- 7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이 대폭 감소했으나 도·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4.2% 증가(전월 비로는 0.2% 증가)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정보통신, 금융·보험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4.9%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6.9%), 도매업(5.3%), 소매업(7.0%) 등 모든 업종 실적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비 6.1%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서비스 총지수	106.9	108.4	106.2	110.5	105.9	110.8	109.5	113.5	111.2
상승률	2.3	1.4	-2.0	-2.0	2.2	5.7	4.2	4.9	4.2
전기비	-	-	-	0.9	0.7	1.7	-0.4	1.6	0.2
도·소매	1.5	-0.4	-2.6	-1.8	3.3	5.4	3.1	3.9	6.1
운수·창고	2.1	0.0	-14.2	-13.1	-2.2	11.0	8.9	9.4	7.0
숙박·음식점	-1.9	-1.0	-18.5	-24.6	-13.1	1.5	-2.1	-0.5	-7.5
정보통신	1.4	3.5	1.4	0.0	2.0	3.8	2.9	5.4	7.1
금융·보험	5.8	1.7	14.0	18.7	14.8	9.7	7.4	10.1	7.4
부동산	0.2	0.4	5.5	0.5	-2.7	5.7	5.5	3.1	-3.5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	1.4	0.1	0.3	2.1	4.2	2.7	3.2	-2.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0.6	2.3	-9.9	-11.7	-4.7	5.3	5.3	5.5	4.9
교육	0.1	-0.5	-4.7	-3.9	0.1	2.9	3.3	0.8	2.6
보건·사회복지	5.6	8.1	1.4	-0.4	0.8	3.0	3.1	3.7	5.2
예술·스포츠·여가	-0.6	1.2	-32.6	-33.3	-18.0	20.6	18.3	11.7	2.0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7	-1.5	-8.2	-10.4	-1.6	0.3	-3.6	-2.4	1.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0	-0.4	3.3	2.3	0.5	6.1	6.3	5.2	9.5
지식서비스	3.2	3.1	3.9	4.7	5.5	5.5	4.5	5.5	4.9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은 2020년 3월~2021년 5월까지 전년동월비가 7.6%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 2021년 6월에 -0.1%로 잠시 크게 둔화되었으나 7월 들어 다시 전년동월비가 크게 상승

- 운수·창고업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20.1%), 항공운송업(11.5%) 및 수상운송업(8.0%)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육상운송업(-0.6%)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전년동월비 7.0% 증가

* 항공운송업은 2020년 4월(-65.3%), 8월(-65.4%), 2021년 1월(-66.5%)에 2000년 이후 최대폭 감소(중전 2009년 6월, -16.2%)했으나, 202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증가세 유지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3.4%), 음식점업(-6.4%), 주점업(-13.2%)의 실적 악화로 전년동월비 7.5% 감소

* 숙박업은 2021년 4월(55.1%)부터 6월(18.4%)까지 큰 폭의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7월에 전년동월비 감소세로 전환

* 주점업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5월(-6.6%), 6월(-6.6%)에 이어 7월(-13.2%)에도 전년동월비 크게 감소

- 정보통신업은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8.3%)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보서비스(14.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3.5%), 방송업(9.8%)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5.5% 증가

- 특히 정보서비스업은 5월(14.6%), 6월(15.6%), 7월(14.5%) 모두 두 자릿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을 보이며 정보통신업 상승을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업(8.7%), 보험업(6.2%),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4.8%) 모두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7.4% 증가

-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6%),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8.7%)의 실적 악화 및 부동산 관리업(0.5%)의 실적 둔화로 전년동월비 3.5% 감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연구개발업(-3.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2.7%)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악화로 전년동월비 2.0% 감소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임대업(부동산 제외, 10.6%),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8.7%), 사업지원서비스업(2.2%) 모든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9%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2020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4월(-13.5%)에 2000년 이후 최대폭 감소했으나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증가세 유지

- 교육은 학원(21.4%)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중이 높은 초등교육기관(-0.5%), 중등교육기관(-1.2%), 고등교육기관(1.8%)의 실적 감소 및 둔화로 전년동월비 2.6% 증가
* 교육은 2020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20년 3월(-9.7%)에 2000년 5월(-9.5%) 이후 최대폭 감소 이후 2021년 3월부터에 증가세 전환하였으나 소폭의 증가세 유지
- 보건·사회복지업은 의원(7.1%), 병원(5.6%), 거주복지시설 운영업(5.6%),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2.7%)이 증가해 전년동월비 5.2%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는 스포츠서비스업(4.7%),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2.5%),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3.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0.8%)으로 전년동월비 2.0% 증가
- 유원지 및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은 5월(39.1%), 6월(12.7%) 전년동월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7월에 다시 실적이 크게 악화(전월비 -7.4%)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협회 및 단체(6.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5.4%)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기타 개인서비스업(-4.3%)이 감소해 전년동월비 1.6% 증가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18.0%) 실적 호조에 힘입어,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7.8%)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비 9.5% 증가

(2) 고용

□ 7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7만 1,000명(2.5%) 증가

- 7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도·소매, 협회·수리·개인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운수·창고, 공공행정·국방 등 대부분 업종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월비 47만 1,000명(2.5%) 증가(전월비로는 4만 3,000명 증가, 0.2%)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총취업자 수	18,796	19,111	18,866	18,864	18,514	19,270	19,313	19,399	19,442
증감률	0.4	1.7	-1.3	-2.2	-2.0	2.6	2.6	2.5	2.5
전기비	-	-	-	-0.3	-1.9	4.1	1.1	0.4	0.2
도·소매	-1.9	-1.6	-4.4	-5.1	-5.4	-4.5	-3.8	-4.7	-5.2
운수·창고	0.1	1.8	3.6	1.8	2.8	6.5	6.2	6.1	8.2
숙박·음식점	-2.0	2.7	-6.9	-10.1	-9.3	1.2	0.2	0.6	-0.6
정보통신	7.0	2.8	-1.6	-2.1	0.5	4.9	3.4	6.6	5.4
금융·보험	5.8	-4.7	-2.7	-3.1	1.8	4.1	3.2	5.7	4.6
부동산	-2.2	5.3	-7.0	-12.4	-7.3	2.7	2.6	5.1	4.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4	5.5	0.6	-0.2	1.2	6.1	5.0	7.5	4.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4.6	0.1	2.7	4.3	1.9	5.6	7.7	6.1	6.5
공공행정·국방	4.9	-3.0	3.3	11.2	5.0	7.6	7.6	7.9	8.3
교육	-3.2	2.0	-4.6	-5.5	-2.3	2.4	2.3	1.1	1.5
보건·사회복지	6.5	7.8	5.9	3.9	2.8	9.6	10.3	8.7	9.9
예술·스포츠·여가	3.8	11.3	0.3	-10.1	-8.9	-6.2	-7.7	-8.2	-5.5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2	-0.3	-3.5	-3.5	-7.1	-3.6	-3.8	-4.6	-4.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3	6.6	12.9	12.9	11.1	11.9	13.3	10.4	13.6
지식서비스	2.6	3.6	0.2	-0.9	0.8	5.9	5.7	5.9	5.7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보건·사회복지는 전년동월비 23만 7,000명(9.9%) 증가, 전체 서비스업종 취업자 수 증가의 50.3%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그러나 2021년 2월에 전월비 24만 5,000명 대폭 증가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6월 2만 1,000명, 7월 4만 2,000명으로 전월비 증가폭은 감소

- 운수·창고(12만 1,000명, 8.2%), 공공행정·국방(9만 1,000명, 8.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8만 7,000명, 6.5%), 전문·과학·기술서비스(5만 7,000명, 4.9%), 정보통신(4만 6,000명, 5.4%)도 전년동월비 크게 증가
- 교육(2만 7,000명, 1.5%), 금융·보험(3만 5,000명, 4.6%), 수도·하수·폐기물처리(2만 1,000명, 13.6%), 부동산(2만 4,000명, 4.7%)도 전년동월비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1만 2,000명, 0.6%)은 소폭 감소
- 반면, 도·소매업은 전년동월비 18만 5,000명(-5.2%) 감소해 전체 서비스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
 - 2021년 1월(-6.1%), 3월(-4.7%), 5월(-3.8%)로 전년동월비의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6월(-4.7%)부터 다시 확대
- 예술·스포츠·여가(5만 명, -5.5%), 협회·수리·개인서비스(2만 8,000명, -4.2%)도 감소
 - * 예술·스포츠·여가는 2020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비 감소했으며, 2021년 1월(-15.9%)에 전년동월비 최대폭 감소했으나 2021년 3월에 증가세 전환하였고 4월부터 다시 감소세 전환 이후 감소폭도 확대
 -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2019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중이며, 2021년 1월(-8.5%)에 2015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최대폭 감소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40만 2,000명(5.7%) 증가(전월비로는 2만 명 감소)
-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38만 명 증가(전월비로는 4만 2,000명 증가)
 - 전년동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3월) 16.2 → (4월) 42.8 → (5월) 40.4 → (6월) 37.9 → (7월) 38.0
 - 전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3월) 28.7 → (4월) 18.3 → (5월) 20.4 → (6월) 7.5, → (7월) 4.2
 - * 민간부문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2013년 1월 이후 2021년 1월에 전년동월비, 전월비 모두 최대폭 감소 후 2021년 전년동월비 3월부터, 전월비 2월부터 증가세 전환

(3) 서비스수지

□ 7월 서비스수지 8,200만 달러 적자

- 7월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 확대 및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감소로 인해 전월비 8억 6,500만 달러 감소한 8,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수지의 흑자 확대로 전월비 3억 증가한 15억 9,000만 달러 흑자
 - 항공운송수지 흑자 감소, 우편 및 상업송달서비스 수지의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송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비 3억 4,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며 전체 운송수지 흑자 확대 주도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서비스수지	-29,369	-26,845	-16,190	-2,342	-1,399	-1,498	-563	-947	-82
가공서비스	-7,325	-7,611	-5,685	-1,494	-1,475	-1,425	-448	-505	-517
유지보수	-323	-348	-913	-230	-221	-208	-81	-6	-34
운송	-2,508	-1,734	2,132	1,506	2,519	3,290	1,188	1,294	1,593
여행	-16,566	-11,872	-5,630	-1,428	-1,251	-1,805	-712	-488	-493
건설	9,719	6,776	4,770	1,445	1,225	887	330	246	213
보험	107	-256	-336	86	-106	-84	-25	-33	-37
금융	817	921	1,757	555	368	442	129	232	104
지식재산권사용료	-2,063	-2,157	-3,034	-645	-783	-984	137	-752	-382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557	2,461	1,604	514	856	1,142	16	452	531
기타 사업서비스	-12,215	-12,391	-10,410	-2,576	-2,403	-2,795	-1,175	-1,323	-1,094
개인, 문화, 여가	227	271	184	93	127	155	63	26	61
정부	-797	-905	-629	-169	-254	-115	14	-88	-27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 감소로 인해 전월 7억 5,000만 달러에서 3억 8,0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3억 7,000만 달러 감소
 - 전월비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은 4억 5,0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한 반면,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5,400만 달러, 4,600만 달러 증가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기술·무역·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영향으로 전월비 2억 3,000만 달러 감소한 10억 9,000만 달러 적자 기록
 - 기술·무역·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전월 8억 2,000만 달러에서 3억 2,000만 달러로 5억 달러 적자 감소
- 금융서비스는 전월비 1억 3,000만 달러 감소한 1억 달러
 - 명시적수수료 및 기타금융서비스 지급이 전월 7,000만 달러에서 1억 5,000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금융서비스수지 흑자 감소 주도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는 전체 흑자 규모가 전월 4억 5,000만 달러에서 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확대
- 건설수지는 전월 2억 5,000만 달러에서 2억 1,000만 달러 흑자 기록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작은 흑자 규모이며, 2021년 3월부터 지속적인 감소세
- 여행수지는 유학연수 지급 증가로 전월 4억 8,800만 달러에서 4억 9,200만 달러로 적자 규모 소폭 확대
 - 유학연수 지급은 2억 7,000만 달러로 전월비 7,200만 달러 증가
- 공공서비스는 적자 규모가 전월 5억 달러에서 5억 2,000만 달러로 소폭 확대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7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7.9% 증가
-충북(16.9%), 대구(15.1%), 경기(15.1%)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대전(-8.9%), 광주(-8.1%)는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전국		0.4	-0.4	0.2	0.0	4.4	12.7	12.2	14.5	11.5	7.9
수도권	서울	-6.4	-15.3	-16.2	-10.1	0.9	11.4	11.0	9.1	14.3	11.0
	인천	-5.3	-1.0	4.2	-1.4	3.4	16.2	14.6	17.5	16.6	11.6
	경기	3.6	8.6	10.6	1.0	11.0	19.1	22.0	18.8	16.5	15.1
충청권	대전	10.1	-6.9	-3.0	-4.0	3.8	12.7	12.0	20.9	6.8	-8.9
	세종	2.1	7.1	4.7	10.2	8.8	14.8	13.1	17.0	14.5	10.8
	충북	1.8	-5.2	-4.9	2.2	7.6	19.3	12.1	24.0	22.3	16.9
	충남	-4.4	-2.4	-4.2	0.1	-0.2	6.9	7.2	9.5	4.3	5.6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호남권	광주	-0.9	-0.2	12.5	7.6	7.9	25.9	35.2	32.1	12.7	-8.1
	전북	-6.1	-5.7	-4.7	-4.7	2.6	12.2	6.6	14.5	16.1	8.8
	전남	2.1	-0.8	-2.0	-3.7	2.9	9.1	8.4	11.2	7.6	5.6
대경권	대구	0.0	-11.5	-11.0	-6.3	1.1	28.4	24.3	33.1	28.8	15.1
	경북	-2.0	-5.9	-4.0	-4.1	4.3	10.0	8.3	13.4	8.2	5.5
동남권	부산	-1.8	-6.6	-7.1	-9.6	-7.4	2.1	-0.1	6.4	0.3	0.9
	울산	1.3	-6.4	-3.0	-3.6	4.6	9.5	6.5	13.4	9.1	0.4
	경남	1.6	-7.1	-7.0	-5.8	-4.2	8.7	5.9	13.0	7.7	3.9
강원권		0.6	-5.3	-5.3	-5.1	-3.6	3.2	1.8	4.8	2.9	2.8
제주권		-2.6	-6.1	-2.9	-1.6	3.7	10.2	5.6	15.9	9.4	13.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

(2) 고용

● 7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65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2.0% 증가

- 경기(4.9%), 대구(3.5%), 강원(3.4%)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울산(-1.4%), 경북(-0.5%) 등은 감소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전국		27,123 (1.1)	26,904 (-0.8)	27,068 (-1.1)	26,952 (-1.6)	26,369 (-1.4)	27,467 (2.3)	27,214 (2.5)	27,550 (2.3)	27,637 (2.2)	27,648 (2.0)
수도권	서울	5,086 (0.1)	5,051 (-0.7)	5,059 (-1.7)	5,054 (-1.5)	4,960 (-2.2)	5,081 (1.2)	5,057 (1.4)	5,088 (1.1)	5,098 (1.0)	5,087 (0.2)
	인천	1,581 (0.4)	1,560 (-1.3)	1,570 (-1.0)	1,556 (-2.0)	1,531 (-1.4)	1,575 (0.9)	1,562 (1.0)	1,585 (0.9)	1,578 (0.8)	1,566 (-0.3)
	경기	6,952 (2.4)	6,909 (-0.6)	6,904 (-1.4)	6,906 (-1.9)	6,850 (-0.9)	7,154 (3.5)	7,062 (3.1)	7,179 (3.4)	7,220 (4.1)	7,261 (4.9)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충청권	대전	772 (1.7)	780 (1.0)	784 (-0.1)	788 (0.4)	759 (-2.2)	787 (1.8)	775 (0.9)	787 (1.7)	799 (2.6)	794 (1.8)
	세종	168 (13.5)	180 (7.1)	185 (8.2)	182 (5.2)	180 (4.7)	188 (4.4)	187 (5.6)	188 (5.6)	189 (3.3)	188 (2.2)
	충북	880 (0.5)	890 (1.1)	901 (0.7)	887 (0.2)	859 (-1.3)	907 (0.6)	897 (1.1)	911 (0.3)	912 (0.1)	906 (-0.3)
	충남	1,196 (1.4)	1,176 (-1.7)	1,207 (-0.2)	1,182 (-1.7)	1,115 (-1.1)	1,217 (2.3)	1,203 (2.6)	1,224 (2.9)	1,224 (1.6)	1,230 (1.7)
호남권	광주	750 (0.1)	748 (-0.3)	749 (-0.3)	748 (-1.4)	736 (-1.5)	752 (0.8)	751 (1.9)	754 (0.9)	750 (-0.7)	754 (0.7)
	전북	928 (1.4)	932 (0.4)	947 (1.4)	947 (1.4)	923 (1.9)	962 (3.6)	948 (3.8)	961 (3.2)	977 (3.5)	971 (2.6)
	전남	974 (1.4)	974 (0.0)	982 (0.1)	975 (-1.4)	947 (-1.5)	995 (1.8)	982 (2.3)	1,001 (2.0)	1,002 (1.1)	992 (0.9)
대경권	대구	1,219 (-0.6)	1,184 (-2.9)	1,200 (-2.2)	1,206 (-1.0)	1,184 (1.3)	1,229 (5.7)	1,217 (7.6)	1,235 (5.6)	1,235 (4.0)	1,235 (3.5)
	경북	1,430 (0.2)	1,418 (-0.8)	1,441 (-0.5)	1,422 (-1.9)	1,357 (-2.9)	1,417 (0.3)	1,408 (0.9)	1,421 (0.0)	1,421 (-0.2)	1,438 (-0.5)
동남권	부산	1,676 (1.1)	1,640 (-2.1)	1,643 (-2.9)	1,649 (-2.7)	1,618 (-2.0)	1,670 (3.4)	1,658 (3.6)	1,672 (3.8)	1,680 (2.8)	1,685 (2.8)
	울산	571 (-0.5)	560 (-1.9)	563 (-2.3)	559 (-3.1)	549 (-2.7)	552 (-0.5)	553 (0.2)	554 (-0.5)	550 (-1.3)	554 (-1.4)
	경남	1,749 (0.2)	1,729 (-1.1)	1,739 (-0.9)	1,722 (-2.3)	1,682 (-2.8)	1,762 (2.0)	1,748 (2.0)	1,766 (2.4)	1,772 (1.7)	1,764 (1.1)
강원권		811 (2.8)	795 (-2.0)	816 (-3.9)	786 (-3.2)	744 (-2.6)	832 (2.2)	818 (2.1)	836 (2.2)	843 (2.7)	844 (3.4)
제주권		382 (2.7)	378 (-1.0)	378 (-0.8)	383 (-1.5)	375 (-1.3)	388 (4.6)	389 (5.1)	387 (3.8)	386 (4.6)	380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9.6% 증가한 554억 달러를 기록

- 전국 수출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15대 주력품목이 모두 플러스를 보이며 무역 사상 최대치를 기록. 지역의 경우 역대 최고 월중 실적을 기록한 제주(145.2%)에서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농수축산물 5개월 연속 크게 증가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전국		-10.4	-5.5	-3.5	4.1	12.6	42.1	41.2	45.6	39.8	29.6
수도권	서울	-11.2	-7.1	-1.1	5.9	18.7	72.9	76.5	89.6	56.4	25.4
	인천	-6.8	-0.8	0.4	1.1	-1.0	27.7	18.9	27.4	37.2	26.6
	경기	-18.6	-1.3	6.6	6.7	15.6	27.2	26.3	29.0	26.3	19.7
충청권	대전	-10.3	24.0	46.7	28.6	3.3	12.6	16.4	11.5	10.4	-10.9
	세종	4.5	1.2	-3.8	4.1	13.4	31.1	26.2	50.1	19.6	12.8
	충북	-5.0	12.6	13.0	27.7	24.1	19.2	11.2	15.0	31.4	29.9
	충남	-13.1	-0.5	-4.0	10.4	12.9	42.4	45.4	42.4	39.7	46.5
호남권	광주	-8.5	2.7	20.3	17.0	17.7	49.3	61.5	69.2	25.2	6.2
	전북	-16.5	-10.6	-6.2	2.7	18.1	59.5	41.2	67.8	73.3	44.6
	전남	-11.0	-16.9	-14.9	-10.6	22.3	84.3	101.2	97.4	61.5	61.8
대경권	대구	-7.6	-16.4	-13.5	-7.8	5.7	65.1	60.8	82.5	55.0	30.9
	경북	-7.8	-1.6	-4.3	11.3	14.3	31.9	36.0	37.0	23.3	11.5
동남권	부산	-3.4	-18.7	-18.9	-16.2	8.7	59.5	43.6	68.9	68.9	36.3
	울산	-0.9	-19.3	-17.0	-13.1	5.4	65.7	50.8	73.4	75.2	45.6
	경남	-2.2	-8.8	-18.8	7.6	5.6	20.1	29.4	14.2	18.5	17.0
강원권		-0.4	-3.1	-0.6	11.0	34.7	47.5	49.8	72.9	25.6	46.6
제주권		-18.3	4.0	-8.8	13.4	16.9	92.7	81.9	95.3	101.5	145.2

자료: 한국무역협회.

(1) 수도권

- 서울: 생산 증가(11.0%), 고용 소폭 증가(0.2%), 수출 증가(25.4%)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10.3%)의 생산이 6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0.7%)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4%)의 증가로 전체 고용 소폭 증가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69.8%), 자동차부품(44.2%), 비누치약 및 화장품(11.9%), 반도체(12.2%) 등 품목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인천: 생산 증가(11.6%), 고용 감소(-0.3%), 수출 증가(26.6%)
 - 기타 기계 및 장비(37.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3.4%) 등이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2%)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14.3%), 제조업(-1.9%) 부문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전환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83.6%), 철강판(3.8%), 건설광산기계(70.4%) 등 증가세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경기: 생산 증가(15.1%), 고용 증가(4.9%), 수출 증가(19.7%)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7.1%) 등 주요 업종의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5.8%), 제조업(6.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5%)의 전 부문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24.2%), 자동차(15.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22.2%), 반도체 제조용장비(43.9%)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서울·인천·경기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0	-21.0	-22.8	-20.2	-6.3	10.3	8.9	10.6	11.8	10.3
		전자부품 외	-1.2	-17.0	-24.6	-5.7	1.1	11.3	11.0	6.1	16.9	-0.5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8.2	-5.8	5.0	-9.7	-0.8	15.3	10.6	15.5	19.8	-4.1
	인천	기계 및 장비	-10.2	-1.4	-0.1	11.3	20.1	52.8	50.7	48.6	58.5	37.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	-9.9	9.5	-8.5	-2.8	6.4	-0.1	11.3	9.1	-20.2
		전자부품 외	-7.8	2.9	-4.5	31.5	11.6	74.8	80.4	95.4	52.1	23.4
	경기	전자부품 외	3.9	19.7	23.9	7.6	22.3	22.5	25.4	22.9	19.6	27.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10.0	-2.8	0.3	22.4	23.4	26.5	33.6	12.3	-0.4
		기계 및 장비	27.2	14.0	2.4	-16.5	-10.4	19.2	33.6	6.3	16.3	-10.2
고 용	서울	농림·어업	8 (14.3)	7 (-12.5)	8 (-11.1)	8 (0.0)	6 (0.0)	7 (-12.5)	6 (-25.0)	7 (0.0)	7 (-12.5)	3 (-62.5)
		제조업	449 (-0.2)	447 (-0.4)	454 (0.9)	443 (-0.4)	449 (0.4)	439 (-0.9)	436 (-3.8)	432 (-1.4)	448 (2.1)	445 (-0.7)
		SOC·서비스	4,630 (0.1)	4,597 (-0.7)	4,597 (-1.9)	4,604 (-1.5)	4,506 (-2.4)	4,636 (1.4)	4,616 (2.0)	4,649 (1.3)	4,643 (0.9)	4,639 (0.4)
	인천	농림·어업	15 (150.0)	14 (-6.7)	16 (-20.0)	12 (-29.4)	9 (-25.0)	12 (-20.0)	10 (-28.6)	13 (-13.3)	13 (-13.3)	12 (-14.3)
		제조업	328 (-7.1)	324 (-1.2)	324 (-0.3)	322 (-0.3)	311 (-3.7)	303 (-7.9)	295 (-9.0)	302 (-9.6)	311 (-5.5)	317 (-1.9)
		SOC·서비스	1,238 (1.8)	1,221 (-1.4)	1,229 (-1.0)	1,221 (-2.2)	1,211 (-0.6)	1,260 (3.5)	1,256 (4.0)	1,270 (3.9)	1,253 (2.6)	1,236 (0.2)
	경기	농림·어업	118 (5.4)	107 (-9.3)	118 (-23.4)	98 (-16.2)	69 (-21.6)	122 (-2.4)	113 (-11.7)	124 (1.6)	128 (3.2)	127 (5.8)
		제조업	1,259 (-4.7)	1,283 (1.9)	1,271 (2.1)	1,309 (1.8)	1,362 (5.8)	1,355 (7.1)	1,362 (8.3)	1,377 (8.0)	1,325 (5.1)	1,335 (6.3)
		SOC·서비스	5,575 (4.1)	5,519 (-1.0)	5,515 (-1.5)	5,500 (-2.5)	5,419 (-2.1)	5,677 (2.8)	5,587 (2.2)	5,677 (2.4)	5,767 (3.9)	5,799 (4.5)
수 출	서울		57,379 (-11.2)	53,332 (-7.1)	14,013 (-1.1)	15,303 (5.9)	16,333 (18.7)	17,736 (72.9)	6,113 (76.5)	5,680 (89.6)	5,943 (56.4)	5,735 (25.4)
	인천		38,018 (-6.8)	37,701 (-0.8)	9,192 (0.4)	9,947 (1.1)	10,057 (-1.0)	10,731 (27.7)	3,488 (18.9)	3,402 (27.4)	3,842 (37.2)	3,712 (26.6)
	경기		116,686 (-18.6)	115,157 (-1.3)	30,154 (6.6)	31,098 (6.7)	31,166 (15.6)	34,256 (27.2)	11,385 (26.3)	11,015 (29.0)	11,856 (26.3)	12,011 (19.7)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2) 충청권

- 대전: 생산 감소(-8.9%), 고용 증가(1.8%), 수출 감소(-10.9%)
 - 상위수출품 중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23.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5.9%)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전환
 - 제조업(-10.9%)이 감소세이나, 농림·어업(14.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6%)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45.8%)는 증가세이나, 원동기 및 펌프(-8.7%), 기호식품(-13.5%), 건전지 및 축전지(-99.6%)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전환
- 세종: 생산 증가(10.8%), 고용 증가(2.2%), 수출 증가(12.8%)
 - 광업·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0.8%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제조업(-4.2%)은 감소세이나, 농림·어업(11.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0%)에서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60.4%), 합성수지(146.7%), 정밀화학원료(56.2%)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
- 충북: 생산 증가(16.9%), 고용 감소(-0.3%), 수출 증가(29.9%)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8.4%), 식료품 제조업(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5.9%) 등의 동반 호조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4.0%)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1.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전환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42.3%), 건전지 및 축전지(42.5%), 농약 및 의약품(157.9%), 플라스틱 제품(8.0%)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충남: 생산 증가(5.6%), 고용 증가(1.7%), 수출 증가(46.5%)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8.1%)의 꾸준한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견인
 - 농림·어업(15.7%), 제조업(5.9%)의 증가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6%)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대전·세종·충북·충남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 산	대전	담배 제조업	7.4	11.7	25.3	27.6	9.6	12.4	28.7	9.5	2.6	-23.5	
		기계 및 장비	18.5	-23.6	-30.6	-15.3	17.3	25.6	19.3	20.0	35.7	10.3	
		화학제품 외	32.8	-4.7	11.2	4.9	14.7	-11.8	-8.7	-4.4	-20.4	-25.9	
	세종	총지수	2.1	7.1	4.7	10.2	8.8	14.8	13.1	17.0	14.5	10.8	
		전자부품 외	3.8	-14.2	-16.8	-1.9	9.4	31.1	18.7	40.3	34.2	38.4	
		식료품	13.3	5.3	7.9	4.7	4.6	6.2	3.7	10.1	5.2	2.6	
	충북	화학제품 외	1.2	3.3	-0.9	27.5	30.4	56.7	30.2	77.5	72.7	55.9	
		전자부품 외	-9.8	-9.5	-12.8	5.7	-23.1	-10.0	-7.0	-8.0	-14.7	-7.3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	-0.4	8.0	-7.6	5.8	5.3	7.2	3.2	5.3	-24.7	
		화학제품 외	-3.0	-1.4	-11.1	-3.5	4.4	12.9	17.9	15.8	4.9	18.1	
고 용	대전	농림·어업	8 (14.3)	8 (0.0)	7 (-22.2)	7 (-30.0)	7 (-22.2)	8 (-11.1)	9 (0.0)	8 (-11.1)	9 (0.0)	8 (14.3)	
		제조업	102 (21.4)	105 (2.9)	103 (-1.9)	100 (-8.3)	94 (-14.5)	93 (-12.3)	95 (-12.8)	96 (-9.4)	89 (-13.6)	90 (-10.9)	
		SOC·서비스	661 (-1.0)	667 (0.9)	673 (0.3)	680 (2.3)	656 (0.0)	685 (4.1)	671 (3.2)	683 (3.6)	701 (5.1)	695 (3.6)	
	세종	농림·어업	8 (14.3)	8 (0.0)	9 (12.5)	7 (0.0)	6 (20.0)	11 (22.2)	10 (25.0)	11 (22.2)	11 (22.2)	10 (11.1)	
		제조업	24 (0.0)	24 (0.0)	24 (0.0)	24 (4.3)	25 (4.2)	23 (0.0)	23 (0.0)	22 (-4.3)	23 (-4.2)	23 (-4.2)	
		SOC·서비스	136 (16.2)	148 (8.8)	153 (10.1)	151 (5.6)	150 (4.9)	155 (4.7)	154 (5.5)	155 (6.2)	155 (2.6)	155 (2.0)	
	충북	농림·어업	89 (-1.1)	93 (4.5)	101 (1.0)	88 (-2.2)	79 (-3.7)	101 (0.0)	97 (3.2)	103 (-4.6)	103 (1.0)	101 (-1.9)	
		제조업	190 (4.4)	201 (5.8)	205 (8.5)	209 (10.0)	216 (11.9)	213 (8.7)	210 (9.9)	216 (8.0)	213 (8.1)	207 (4.0)	
		SOC·서비스	601 (0.0)	596 (-0.8)	596 (-1.7)	589 (-2.5)	563 (-5.2)	592 (-2.1)	588 (-2.3)	591 (-1.5)	595 (-2.8)	597 (-1.5)	
	충남	농림·어업	143 (2.1)	162 (13.3)	179 (9.1)	168 (9.1)	126 (3.3)	197 (9.4)	188 (13.3)	201 (6.9)	203 (9.7)	206 (15.7)	
		제조업	270 (0.0)	250 (-7.4)	238 (-9.8)	252 (-5.6)	255 (-2.3)	259 (4.0)	261 (4.0)	262 (7.4)	255 (1.2)	252 (5.9)	
		SOC·서비스	783 (1.8)	764 (-2.4)	790 (1.3)	762 (-2.4)	735 (-1.3)	760 (-0.1)	754 (-0.3)	761 (0.4)	766 (-0.3)	772 (-2.6)	
수 출	대전		4,048 (-10.3)	5,018 (24.0)	1,370 (46.7)	1,366 (28.6)	1,280 (3.3)	1,174 (12.6)	371 (16.4)	372 (11.5)	430 (10.4)	414 (-10.9)	
	세종		1,285 (4.5)	1,300 (1.2)	333 (-3.8)	372 (4.1)	362 (13.4)	361 (31.1)	117 (26.2)	126 (50.1)	118 (19.6)	132 (12.8)	
	충북		22,080 (-5.0)	24,870 (12.6)	6,294 (13.0)	7,134 (27.7)	7,214 (24.1)	6,709 (19.2)	2,026 (11.2)	2,236 (15.0)	2,446 (31.4)	2,608 (29.9)	
	충남		79,951 (-13.1)	79,572 (-0.5)	20,215 (-4.0)	22,475 (10.4)	22,046 (12.9)	24,715 (42.4)	7,653 (45.4)	8,174 (42.4)	8,889 (39.7)	8,701 (46.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주력수출품 중 반도체(55.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63.2%), 컴퓨터(35.9%), 석유제품(59.1%)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3) 호남권

- 광주: 생산 감소(-8.1%), 고용 증가(0.7%), 수출 증가(6.2%)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2.6%), 기타 기계 및 장비(-3.2%) 등 업종이 감소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도 감소 전환
 - 농림·어업(-25.0%), 제조업(-9.3%)에서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30.4%), 냉장고(43.8%)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25.5%)의 감소로 전체 수출 증가폭 축소
- 전북: 생산 증가(8.8%), 고용 증가(2.6%), 수출 증가(44.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9%)은 증가세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2.4%), 식료품 제조업(-4.5%) 등의 생산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폭 축소
 - 농림·어업(-10.8%), 제조업(-8.1%)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8.8%) 부분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전년동월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31.2%), 합성수지(76.1%), 동제품(117.6%) 등은 증가하였으나, 농약 및 의약품(-32.6%)의 감소로 전체 수출 증가폭 축소
- 전남: 생산 증가(5.6%), 고용 증가(0.9%), 수출 증가(61.8%)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8%), 1차 금속 제조업(11.5%), 석유정제품(17.9%)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4.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5%)의 증가로 제조업(-14.9%)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석유제품(71.1%), 합성수지(50.8%), 철강판(181.9%), 기초유분(116.8%)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광주·전북·전남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0.4	16.9	1.2	5.6	27.0	42.3	14.5	21.9	-12.6
		전기장비	1.0	8.7	21.9	15.5	27.1	41.7	57.2	49.9	22.2	4.3
		기계 및 장비	8.0	-11.2	-0.7	-6.6	-7.1	28.9	26.3	53.0	13.3	-3.2
	전 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14.3	-9.3	-12.8	11.5	6.4	0.3	7.4	12.3	-2.4
		화학제품 외	-11.0	-11.1	-5.6	-6.9	-3.2	26.6	22.6	30.7	26.9	2.9
		식료품 제조업	5.6	-0.6	1.3	-5.0	-1.7	0.0	-0.9	-1.6	2.4	-4.5
	전 남	화학제품 외	2.2	-2.8	-1.8	-11.7	3.3	13.4	11.9	13.5	14.8	9.8
		1차 금속 제조업	-0.9	-8.1	-4.7	-3.0	3.7	24.1	24.8	38.1	10.4	11.5
		석유정제품	-2.9	-3.7	-8.7	-9.1	0.6	14.6	4.5	18.7	19.5	17.9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3 (30.0)	16 (23.1)	16 (6.7)	15 (-16.7)	12 (-25.0)	13 (-18.8)	13 (-7.1)	12 (-29.4)	13 (-23.5)	12 (-25.0)
		제조업	110 (-0.9)	107 (-2.7)	107 (-1.8)	105 (-4.5)	103 (-5.5)	100 (-6.5)	100 (-8.3)	101 (-7.3)	99 (-5.7)	98 (-9.3)
		SOC·서비스	626 (-0.2)	625 (-0.2)	626 (0.0)	628 (-0.5)	620 (-0.2)	639 (2.6)	637 (3.7)	641 (3.1)	638 (0.6)	644 (2.9)
	전 북	농림·어업	168 (7.0)	179 (6.5)	191 (8.5)	176 (2.3)	160 (1.3)	179 (-5.3)	176 (-4.9)	181 (-4.2)	181 (-6.2)	173 (-10.8)
		제조업	123 (0.0)	123 (0.0)	120 (-2.4)	119 (-3.3)	122 (-3.2)	118 (-6.3)	120 (-4.8)	116 (-7.9)	116 (-7.2)	113 (-8.1)
		SOC·서비스	635 (0.0)	630 (-0.8)	634 (0.0)	650 (1.9)	638 (2.7)	664 (8.3)	650 (8.2)	663 (7.8)	679 (8.8)	683 (8.8)
	전 남	농림·어업	191 (-2.6)	205 (7.3)	215 (8.0)	218 (19.8)	205 (14.5)	221 (6.3)	215 (8.6)	223 (6.7)	224 (4.2)	226 (4.6)
		제조업	104 (1.0)	106 (1.9)	112 (12.0)	101 (-3.8)	94 (-10.5)	97 (-10.2)	93 (-13.9)	98 (-9.3)	99 (-9.2)	97 (-14.9)
		SOC·서비스	678 (2.4)	662 (-2.4)	654 (-4.2)	657 (-6.4)	648 (-4.3)	677 (2.4)	673 (2.9)	679 (2.3)	678 (1.8)	669 (2.5)
수 출	광주	13,415 (-8.5)	13,772 (2.7)	3,899 (20.3)	3,820 (17.0)	3,918 (17.7)	4,066 (49.3)	1,465 (61.5)	1,262 (69.2)	1,338 (25.2)	1,401 (6.2)	
	전북	6,537 (-16.5)	5,842 (-10.6)	1,477 (-6.2)	1,621 (2.7)	1,758 (18.1)	2,002 (59.5)	677 (41.2)	621 (67.8)	704 (73.3)	696 (44.6)	
	전남	32,587 (-11.0)	27,092 (-16.9)	7,155 (-14.9)	7,092 (-10.6)	8,987 (22.3)	10,127 (84.3)	3,006 (101.2)	3,624 (97.4)	3,496 (61.5)	3,986 (61.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4) 대경권

- 대구: 생산 증가(15.1%), 고용 증가(3.5%), 수출 증가(30.9%)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4.1%), 금속가공제품(18.8%), 기타 기계 및 장비(24.8%) 등의 증가폭 축소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폭 축소

대구·경북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생 산	대 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13.8	-9.8	4.2	12.1	57.5	47.9	72.7	55.1	14.1
		금속가공제품	-1.5	-13.4	-22.3	-16.3	-10.5	28.1	10.3	33.4	47.0	18.8
		기계 및 장비	10.2	-16.9	-11.9	-21.7	0.8	27.1	23.7	29.2	28.9	24.8
	경 북	전자부품 외	-7.2	-11.4	-5.3	-23.7	14.1	4.2	5.0	9.9	-1.5	6.9
		1차 금속	-7.8	-2.8	-4.9	4.2	-1.5	8.3	1.8	8.8	15.2	5.9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7.0	0.1	6.4	12.9	33.8	25.9	45.5	32.7	9.5
고 용	대 구	농림·어업	33 (10.0)	31 (-6.1)	31 (-11.4)	27 (-22.9)	21 (-36.4)	16 (-51.5)	16 (-46.7)	15 (-57.1)	17 (-51.4)	13 (-59.4)
		제조업	249 (-1.6)	231 (-7.2)	227 (-7.3)	231 (-8.0)	236 (0.0)	246 (7.4)	248 (8.3)	247 (7.9)	243 (6.6)	243 (7.0)
		SOC·서비스	936 (-0.6)	923 (-1.4)	942 (-0.4)	948 (1.7)	927 (3.0)	967 (7.3)	953 (9.3)	973 (7.4)	975 (5.4)	979 (4.8)
	경 북	농림·어업	251 (6.8)	262 (4.4)	288 (6.7)	283 (16.0)	248 (13.8)	285 (9.2)	277 (11.2)	286 (8.7)	294 (8.5)	292 (2.8)
		제조업	299 (5.3)	292 (-2.3)	287 (-5.0)	277 (-11.8)	278 (-9.2)	277 (-6.7)	277 (-8.9)	280 (-5.1)	273 (-6.5)	279 (-3.5)
		SOC·서비스	879 (-3.0)	863 (-1.8)	865 (-1.1)	862 (-3.1)	830 (-4.7)	854 (0.0)	854 (1.5)	855 (-0.7)	854 (-0.7)	866 (-0.6)
수 출	대구		7,491 (-7.6)	6,265 (-16.4)	1,548 (-13.5)	1,775 (-7.8)	1,858 (5.7)	1,954 (65.1)	648 (60.8)	636 (82.5)	670 (55.0)	704 (30.9)
	경북		37,712 (-7.8)	37,096 (-1.6)	9,244 (-4.3)	11,005 (11.3)	10,311 (14.3)	10,320 (31.9)	3,666 (36.0)	3,307 (37.0)	3,347 (23.3)	3,518 (11.5)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농림·어업(-59.4%)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7.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8%)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47.7%), 정밀화학원료(149.1%), 농기계(65.4%), 기구부품(2.8%)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경북: 생산 증가(5.5%), 고용 감소(-0.5%), 수출 증가(11.5%)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6.9%), 1차 금속(5.9%), 자동차 및 트레일러(9.5%)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2.8%)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3.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의 감소로 전년동월비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35.5%), 반도체(2.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1.9%), 광학기기(16.1%)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5) 동남권

- 부산: 생산 증가(0.9%), 고용 증가(2.8%), 수출 증가(36.3%)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4.3%), 자동차 및 트레일러(0.4%), 1차 금속(0.5%) 등의 증가로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6.7%)은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85.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1%)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수출품인 철강판(93.0%), 자동차(133.6%), 철강관 및 철강선(25.9%)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울산: 생산 소폭 증가(0.4%), 고용 감소(-1.4%), 수출 증가(45.6%)
 - 대표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5.5%)는 감소 전환하였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1.7%)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소폭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3%) 부문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상위수출품인 자동차(23.5%), 석유제품(73.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41.1%), 합성수지(81.0%) 등 품목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부산·울산·경남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6.4	-3.6	-2.2	-23.1	-17.3	-9.5	-2.9	-0.5	-22.2	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0	-19.2	-14.6	-26.5	-11.1	14.2	-3.2	37.0	18.0	0.4
		1차 금속 제조업	-0.2	-7.7	-10.5	-11.3	-9.9	-5.3	-8.0	-8.9	1.6	0.5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9.8	2.6	-1.2	20.1	22.0	16.8	32.1	19.8	-5.5
		화학제품 외	0.3	-2.8	-6.3	-0.2	2.1	8.7	9.7	7.6	8.9	11.7
		석유정제품	-3.1	-6.1	-9.4	-7.6	-12.4	-3.3	-11.2	-1.3	3.9	0.0
	경 남	기타 운송장비	42.0	-12.9	-19.1	-27.6	-33.9	-24.6	-34.7	-19.5	-17.8	-19.6
		기계 및 장비	-6.9	-9.8	-9.8	-2.0	-1.2	14.8	18.5	14.1	11.7	6.2
		금속가공제품	-16.0	-1.7	-9.1	-1.8	-6.2	-9.7	-8.8	-4.8	-14.9	-4.8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7 (-30.0)	7 (0.0)	7 (-22.2)	8 (0.0)	8 (0.0)	10 (42.9)	8 (14.3)	10 (42.9)	12 (71.4)	13 (85.7)
		제조업	284 (-0.7)	255 (-10.2)	251 (-11.0)	250 (-5.3)	252 (-3.4)	244 (-5.4)	254 (-0.8)	241 (-6.6)	235 (-9.6)	238 (-6.7)
		SOC·서비스	1,385 (1.8)	1,378 (-0.5)	1,386 (-1.0)	1,391 (-2.2)	1,358 (-1.8)	1,417 (4.9)	1,396 (4.3)	1,421 (5.6)	1,434 (4.9)	1,435 (4.1)
	울 산	농림·어업	6 (0.0)	7 (16.7)	7 (0.0)	7 (0.0)	6 (-14.3)	6 (-14.3)	5 (-28.6)	7 (0.0)	7 (0.0)	7 (0.0)
		제조업	176 (-4.9)	162 (-8.0)	159 (-10.2)	160 (-5.9)	166 (-1.2)	162 (1.3)	166 (2.5)	163 (2.5)	158 (0.0)	161 (0.0)
		SOC·서비스	389 (1.6)	392 (0.8)	397 (1.0)	392 (-2.0)	377 (-3.3)	384 (-1.3)	382 (-0.3)	384 (-1.8)	385 (-1.8)	386 (-2.3)
	경 남	농림·어업	178 (-2.7)	184 (3.4)	188 (1.6)	181 (0.6)	173 (-1.7)	207 (8.4)	196 (5.9)	204 (9.1)	220 (8.9)	220 (15.2)
		제조업	396 (-5.3)	399 (0.8)	398 (1.3)	382 (-5.7)	381 (-7.1)	380 (-6.6)	379 (-6.9)	378 (-7.4)	384 (-5.4)	376 (-7.2)
		SOC·서비스	1,173 (2.5)	1,145 (-2.4)	1,153 (-1.8)	1,159 (-1.4)	1,128 (-1.1)	1,175 (4.3)	1,173 (4.8)	1,184 (5.0)	1,168 (2.9)	1,168 (1.7)
수 출	부산		13,924 (-3.4)	11,320 (-18.7)	2,775 (-18.9)	3,028 (-16.2)	3,327 (8.7)	3,917 (59.5)	1,304 (43.6)	1,253 (68.9)	1,360 (68.9)	1,302 (36.3)
	울산		69,530 (-0.9)	56,091 (-19.3)	14,027 (-17.0)	15,083 (-13.1)	16,520 (5.4)	18,732 (65.7)	6,248 (50.8)	5,873 (73.4)	6,611 (75.2)	6,712 (45.6)
	경남		39,353 (-2.2)	35,893 (-8.8)	7,830 (-18.8)	10,139 (7.6)	10,792 (5.6)	9,261 (20.1)	2,806 (29.4)	2,931 (14.2)	3,524 (18.5)	3,531 (17.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경남: 생산 증가(3.9%), 고용 증가(1.1%), 수출 증가(17.0%)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19.6%), 금속가공제품(-4.8%)이 감소세를 보였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6.2%) 등은 증가하여 지역 전체 생산 증가폭 축소
 - 제조업(-7.2%)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림·어업(15.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에서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5.2%)의 증가와 함께, 자동차부품(20.6%), 원동기 및 펌프(37.3%), 건설광산기계(55.2%)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6) 강원·제주권

- 강원: 생산 증가(2.8%), 고용 증가(3.4%), 수출 증가(46.6%)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3.1%) 등은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식료품 제조업(-2.8%), 음료 제조업(-7.5%)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폭 축소
 - 농림·어업(-17.0%), 제조업(-3.6%)은 감소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7.2%)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전자응용기기(13.2%), 전력용기기(295.5%), 자동차부품(34.6%), 합금철선철 및 고철(253.4%)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 제주: 생산 증가(13.3%), 고용 증가(1.1%), 수출 증가(145.2%)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3.2%) 등의 증가로, 식료품 제조업(-17.5%), 비금속 광물제품(-22.0%)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12.3%)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33.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7%)에서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320.1%)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어류(20.5%), 기호식품(119.6%) 등이 동반 증가하며 역대 최고 월중 실적을 기록

강원·제주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4.7	-4.6	-7.2	-2.4	-4.2	-4.8	-9.9	-0.1	-4.3	3.1
		식료품	5.1	-2.0	2.7	3.6	2.3	0.3	0.2	-0.9	1.6	-2.8
		음료	7.9	-4.2	-4.9	-14.9	-5.6	-12.0	-18.4	-9.7	-7.8	-7.5
	제 주	음료	5.4	-0.7	-2.9	33.2	23.4	-12.6	-12.8	-18.1	-6.6	3.2
		식료품	-6.3	-2.5	-4.6	-5.8	-15.1	-1.8	-1.8	2.8	-6.2	-17.5
		비금속 광물제품	-12.8	-28.8	1.5	-17.0	-6.8	66.6	52.0	197.5	26.4	-22.0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92 (5.7)	82 (-10.9)	96 (-15.8)	67 (-25.6)	46 (-27.0)	75 (-27.2)	70 (-31.4)	76 (-26.9)	80 (-22.3)	83 (-17.0)
		제조업	56 (7.7)	57 (1.8)	55 (-5.2)	54 (-10.0)	55 (-11.3)	54 (-3.6)	54 (-6.9)	52 (-3.7)	55 (0.0)	54 (-3.6)
		SOC·서비스	658 (2.3)	649 (-1.4)	659 (-1.6)	658 (0.3)	636 (0.5)	697 (7.6)	687 (8.4)	701 (7.2)	702 (7.0)	701 (7.2)
	제 주	농림·어업	67 (13.6)	74 (10.4)	73 (9.0)	75 (5.6)	71 (-4.1)	68 (-9.3)	69 (-9.2)	68 (-12.8)	68 (-5.6)	64 (-12.3)
		제조업	12 (0.0)	12 (0.0)	12 (-7.7)	14 (16.7)	13 (8.3)	14 (27.3)	13 (18.2)	13 (8.3)	15 (36.4)	16 (33.3)
		SOC·서비스	303 (0.7)	292 (-3.6)	293 (-2.7)	295 (-3.6)	292 (-0.7)	306 (7.7)	308 (9.2)	306 (8.1)	304 (6.3)	299 (2.7)
수 출	강원		2,088 (-0.4)	2,023 (-3.1)	516 (-0.6)	592 (11.0)	631 (34.7)	658 (47.5)	230 (49.8)	222 (72.9)	206 (25.6)	251 (46.6)
	제주		149 (-18.3)	155 (4.0)	32 (-8.8)	54 (13.4)	45 (16.9)	59 (92.7)	20 (81.9)	19 (95.3)	21 (101.5)	19 (145.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코로나19 이후 자동차산업의 수출 동향과 정책 과제

(1) 문제제기

- 우리 자동차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해외시장 판매 확대에 주력
 - 2015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수출은 둔화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
 -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이월된 수요 등으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수요 호조가 이어지면서 수출물량 및 금액 모두 증가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소비 구조 변화로 수출 차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자동차산업의 수출 동향 및 구조가 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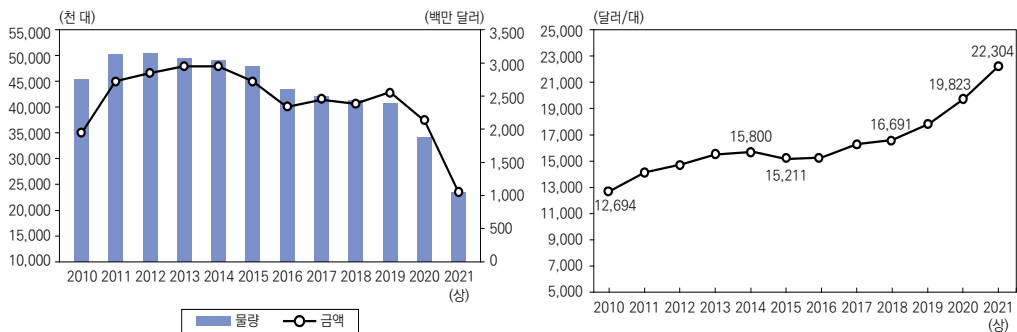
(2)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동차 수요 변화

-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해 취해진 경제 봉쇄가 완화된 2020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
 - 2020년 기저 영향으로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반등하면서 2021년 수요가 전년 대비 10% 내외로 증가하여 8,100만 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적 여력이 있는 선진시장과 비교적 빨리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중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자동차 수요가 회복
 - 그러나 본격적인 수요회복보다는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실적을 상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도 자동차 판매 증가에 제약요인
- EU의 경우 강화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완성차업체들이 BEV, PHEV 공급을 늘리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
 - 2021년 상반기 EU 신차시장 BEV 및 PHEV 점유율이 19.8%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전망
 -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산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동차 수요 회복 예상
- 미국은 전년동기 실적 부진 기저효과와 자산시장 활황으로 높아진 구매력으로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며 2021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한 853만 대 판매 기록
 - 그러나 상반기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과 자동차 재고 부족이 더해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 정도의 회복세
- 중국은 지난 3년간 자동차 수요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
 - 중국 자동차 판매는 2019년 2,37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로 소비가 2,266만 대까지 감소하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이연된 소비로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1,287만 대 수준
 - 중국은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연장과 지방 정부별로 신에너지차 소비 촉진 지원을 실시하면서 판매 확대가 중국 로컬 저가브랜드 신에너지차로 확산

(3) 코로나19 이후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 동향 및 구조

- 우리 자동차 수출은 2012년 317만 대를 정점으로 8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
 - 지속적인 수출 물량 감소는 외자계업체들의 수출 부진과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수출 대체에서 기인
 - 금액기준으로는 2014년 484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하락세

국내 자동차 수출 및 수출단가 동향



자료: 무역협회

- 2020년 수출도 코로나19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면서 188만 대 수준으로 급락
 - 2021년 상반기는 전년동기의 기저효과, 글로벌 수요 회복과 신차모델 수출시장 투입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9% 증가한 105만 대 기록
 - 그러나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국내 완성차업체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수출단가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만 2,304달러로 사상 처음 2만 달러를 상회
 - 이는 수출 차종의 고급화와 전동화 등에 따른 수출 차량의 고부가가치화에서 기인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동향

단위: 대, %

	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물량	비중	물량	비중	물량	비중
SUV	572,367	54.1	459,184	55.9	677,429	54.6
고급브랜드	30,818	2.9	3,959	0.5	12,153	1.0
하이브리드차	91,377	8.6	55,847	6.8	69,057	5.6
PHEV·BEV·FCEV	70,188	6.6	70,245	8.6	42,931	3.5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정리.

주: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고급브랜드의 경우 2020년 SUV와 승용차가 준중형에서 대형으로 라인업을 구축한 후 2021년 미국 등에 수출을 본격화하면서 증가
-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전기동력차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9.1%였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15.3%로 크게 상승
- 국내 완성차업체는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전용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 출시 등 상품성 높은 제품 출시 등으로 제품경쟁력 향상
 -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 재무상황도 경쟁업체 대비 우수한 편이며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장으로 수익성도 개선
 - 환경규제 강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용플랫폼 적용 전 기차는 제품성능, 가격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지녀 친환경차 시장 선점 효과 기대
- 코로나19의 회복과정에서 전동차와 같은 미래차 분야에 각국 정부들이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미국 등에서 전동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
 - 2021년 상반기 대EU 자동차 수출물량 중 44.0%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이며 전기차는 18.4%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대미 수출의 경우도 11.6%가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한 전기동력차이며 대중동 수출도 전기동력차 비중이 13.0%로 EU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4) 정책과제

- 우리 자동차산업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이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국내생산에도 부정적 영향
 - 다만 수출차량의 고부가가치화로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금액기준으로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우리 자동차산업이 과거 생산물량에 기반한 양적 성장에서 품질, 제품성능에 기반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과정
 -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자동차 수요가 내연기관차에서 전동차로 전환되면서 전동차 수출 비중도 상승
 - 글로벌 자동차 수요 변화에 우리 자동차산업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업체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
- 토종 완성차업체들은 수출차량의 고급화, 전동화 등으로 물량감소를 단가 상승으로 상쇄하며 전동차 시장점유율을 확대
 - 그러나 외자계업체들은 고급화나 전동화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이 수출 감소-생산 감소-실적 악화-내수판매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진입
 - 외자계업체의 수출 부진은 외자계업체 납품비중이 높은 부품업체에도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내연기관 부품시장 축소 상황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동차 수출수요에 대응하고 전동차 공급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 필요
 - 외자계 완성차업체들의 경우 국내 공장에서의 전동차 생산에 소극적인 상황으로 이들 업체의 전동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동차 부품 공급망 구축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부품업체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내연기관차 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캐시카우 확보를 통해 전동화 부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능력 확보 유도
 - 스마트 제조 도입을 통해 생산경쟁력을 확대하고 전동차 생산 여건을 마련하여 수출물량 확대에 기여

김경유 | 시스템산업실 선임연구위원